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 書藝 形成의 史的 研究

水 原 大 學 校 美 術 大 學 院

造 型 藝 術 學 科

李 珞 薰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 書藝 形成의 史的 研究

水 原 大 學 校 美 術 大 學 院

造 型 藝 術 學 科

李 珞 薰

碩 士 學 位 論 文

濟州 書藝 形成의 史的 研究

指導教授 車 大 榮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 年 12 月

水 原 大 學 校 美 術 大 學 院

造 型 藝 術 學 科

李 珞 薰

李瑤薰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2012 年 12 月

水 原 大 學 校 美 術 大 學 院

目 次

I. 序論	1
1. 研究 目的	3
2. 研究 方法	4
II. 濟州의 文化 形成과 學問	7
1. 漢字의 歷史	7
2. 學問의 傳來	9
III. 濟州 書藝 形成의 外在的 要因	13
1. 牧民官들의 書藝	13
1) 朝鮮 前期의 목사 奇虔	13
2) 朝鮮 中期의 목사 洪重徵	16
3) 朝鮮 後期의 목사 趙貞喆	18
4) 朝鮮 後期의 목사 李源祚	20
2. 流配客들의 서예	21
1) 朝鮮 前期의 名賢 金淨	21
2) 朝鮮 中期의 大儒 宋時烈	22
3) 秋史 金正喜와 그 門徒	24

(1) 姜道渾	27
(2) 金九五	28
(3) 朴季詹	28
(4) 姜琦奭	29
(5) 李漢震	30

IV. 濟州 書藝 形成의 內在的 要因 33

1. 留學派의 서예	33
1) 高麗 後期의 高適	33
2) 朝鮮 初期의 高得宗	34
3) 朝鮮 末期 留學派	37
(1) 金錫翼	37
(2) 康用範	39
(3) 玄中和	39
2. 濟州의 自生 書藝	40
1) 朝鮮 前期의 金良弼	40
2) 朝鮮 後期의 吳霑	42
3) 朝鮮 末期의 金龍徵	42
4) 朝鮮 末期의 洪鍾時	44
5) 朝鮮 末期의 張聖欽	45
6) 强占期 의 高順欽	47

V. 濟州 書藝의 時代的 書體 分析 49

1. 高得宗의 安平大君 書風	49
-----------------------	----

2. 吳靄의 韓石峯 書風	52
3. 洪宗時の 秋史 書風	54
 VI. 濟州 現代의 書藝 흐름과 整體性	61
1. 濟州 現代의 書藝 흐름	61
2. 濟州 書藝의 整體性	62
 VII. 結論	65
 * 參 考 文 獻	69
 * ABSTRACT	77

圖版目次

〈圖版 1〉 五銖錢	7
〈圖版 2〉 倣製鏡	8
〈圖版 3〉 吏讀文字	8
〈圖版 4〉 瀛州誌(1107)	11
〈圖版 5〉 墓誌石	14
〈圖版 6〉 縣監權克仲-前面	15
〈圖版 7〉 縣監權克仲-後面	15
〈圖版 8〉 韓應浩碑	15
〈圖版 9〉 禾北포구 碑	15
〈圖版 10〉 禾北비석거리 碑	15
〈圖版 11〉 登瀛丘	17
〈圖版 12〉 洪義女之墓碑	18
〈圖版 13〉 洪允愛碑文-詩	19
〈圖版 14〉 李源祚書 桐溪遺墟碑	20
〈圖版 16〉 金淨의 簡札 草書	21
〈圖版 17〉 宋時烈이 曾朱壁立	22
〈圖版 18〉 金尙憲에게 보낸 편지	23
〈圖版 19〉 離別詩 筆跡-24세	24
〈圖版 20〉 暗行御史 時(1825)	25
〈圖版 21〉 金鳳喆 碑文	26
〈圖版 22〉 姜道渾의 歸思	27
〈圖版 23〉 金九五 筆	28
〈圖版 24〉 朴季詹 筆	28
〈圖版 25〉 姜琦奭의 科學試驗紙	29

〈圖版 26〉 姜琦奭의 科學試驗紙	29
〈圖版 27〉 梅溪 遺墟碑	30
〈圖版 28〉 梅溪 李漢雨 科學試驗紙	31
〈圖版 30〉 弘化閣記	35
〈圖版 31〉 夢遊桃源圖 讚揚詩	37
〈圖版 32〉 金致鎔 碑文	38
〈圖版 33〉 歸去來辭	38
〈圖版 34〉 康用範의 筆跡	39
〈圖版 35〉 醉是僊 (1976)	40
〈圖版 36〉 吳霑의 筆跡	42
〈圖版 37〉 金龍徵의 科學試驗紙	43
〈圖版 38〉 金龍徵의 秋史風 書體	43
〈圖版 39〉 李鍾愚의 啓聖祠	44
〈圖版 40〉 乾始門	44
〈圖版 41〉 綺麗	45
〈圖版 42〉 秋史遺墟 碑文	45
〈圖版 43〉 武夷九曲	46
〈圖版 45〉 雅號印	46
〈圖版 46〉 耽羅王子碑	46
〈圖版 47〉 高順欽 書	48
〈圖版 48〉 高性謙碑前面	48
〈圖版 49〉 高性謙碑後面	48
〈圖版 50〉 弘化閣(1435)	49
〈圖版 51〉 弘化閣記	50
〈圖版 52〉 地藏菩薩摩訶	50
〈圖版 53〉 縣監洪三弼墓碑	52

〈圖版 54〉 鄉校移建上樑文	53
〈圖版 55〉 教旨	54
〈圖版 56〉 明月臺	55
〈圖版 57〉 湖西艸堂	56
〈圖版 58〉 天然石谷	57
〈圖版 59〉 篆烟繚青	58
〈圖版 60〉 臨漢鏡銘	58
〈圖版 61〉 黃龍嘉禾	59
〈圖版 62〉 殘書頑石樓	59
〈圖版 63〉 竹爐之室	60



I. 序 論

제주의 역사는 삼성신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절해고도인 제주의 척박한 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외부 세력의 침탈과 지배로,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마저도 제대로 전해진 것이 없다.

고대의 탐라는 九夷중의 한 나라로 島夷라고도 했고 東瀛州 라고도 했다. 신라가 건국되자 탐라는 신라에 入朝하여 國號와 官爵을 수여 받고 신라에 隸屬되지만, 地政學的 여건으로 다시 백제에 復屬되면서 제주의 역사는 대륙의 역사와 같이 한다. 그러나 海上國이라는 특수한 여건은 모든 문화가 대륙과 일치하여 발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문자의 도입과 학문 및 종교의 도입도 별도의 통로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탐라국이 상고시대에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했던 흔적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제주의 제도적 교육은 고려시대 향교가 설립되고 유교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교육의 수준은 지배계층인 土豪 세력의 자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民草들은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지방교육기관인 향교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이른 시기의 문자사용 흔적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한자문화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漢四郡시기로 본다. 중국의 漢四郡은 B.C. 108년 우리나라 서북부에 설치한 樂浪, 臨屯, 眞蕃, 玄菟(현토) 등으로 낙랑을 제외한 3郡은 30년 만에 소멸되었지만 樂浪지역은 오랫동안 文物의 중심지로서 중국문화의 定着地가 되었다.¹⁾ B.C. 37년경 고구려는 郡縣 지역의 생존과 관할의 鬭爭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誕生되었고 美川王 14년(313)에 낙랑지역의 漢四郡을 몰아내면서, 자연히 낙랑지

1) 李圭馥, 『概括 韓國書藝史』, 李花文化社, 2001. p12.

역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로 수용되었다. 한자도 이 시기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중국 문화는 삼국시대가 되어 전쟁과 교류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우리나라는 중국문화의 영향 아래 놓인 것이다.

한자문화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서예는 그동안 많은 금석문을 남겼고 훌륭한 서예가들을 탄생시켰다. 우리나라의 서예역사에 관한 연구서적은 오세창의 『槿域書畫徵』,²⁾ 김영운의 『韓國書畫人名辭書』,³⁾ 金基昇의 『新稿韓國書藝史』⁴⁾등이 있으며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韓國歷代書畫家事典』⁵⁾을 편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제주의 서예 형성과정과 관련된 역사서나 濟州書藝家 人物考 같은 서예와 관련된 전문 서적은 아직 없고, 金榮洽 선생이 지은 『濟州道人名事典』과 金順謙의 小論文⁶⁾ 한 편이 있을 뿐이다.

또한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는 『增補耽羅誌』와 『耽羅紀年』⁷⁾등이 있는데 이 서적은 제주의 고려시대 역사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정치와 사회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주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금석문과 마애명, 선비들의 書跡 등 참고할 만한 모든 서예자료를 조사하여 살펴보고 과거의 학문발전과 제주서예의 형성과정을 사적으로 조명해 보고자한다.

2) 吳世昌, 『槿域書畫徵』, 계명구락부, 1917.

3) 金榮胤, 『韓國書藝人名辭書』, 예술춘추사, 1959.

4) 金基昇, 『新稿韓國書藝史』, 정음사, 1975.

5) 國立文化財研究所, 『韓國歷代書畫家事典』, 예맥, 2011.

6) 金順謙, 『濟州書藝 發達の 史的考察』, 東洋産業社, 1994.

7) 金錫翼이가 지은 제주 유일의 歷史書, 고려 태조21년(938), 조선광무10년(1906)까지 역사기록

1. 研究目的

제주에서의 한자 문화 도입은 우리나라의 한자 문화 도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연구해 봐야 한다. 그것은 2만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탐라국이 독립적 국가 형태로 운영되었고 주변국과의 교역 및 문화의 교류도 개별적 위치에서 이루어져 왔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의 도입 역시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현재도 한자 역사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고증 활동을 통해 한자의 역사를 6,000년 전으로 거슬러 놓고 있다.⁸⁾ 그 근거로는 1899년 殷墟에서 발굴된 甲骨文속에는 仰韶文化 시대의 大汶口陶文과 西安半坡村 유적지의 刻畫符號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한자 역사를 商殷 시대 이전의 시대로 보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일련의 연구 이면에는 漢族의 얼을 계승·발전시키고 내면에 潛在되어 있는 창의적 정신을 湧出케하여 예술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중국문화를 전파시키고자 하는 문화제국주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제주의 서예역사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개별적 경로이든 연속적 경로이든 독립적 국가형태에서의 문자의 사용 시기와 서예의 형성 과정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문자의 도입시기와 과정을 역사자료에서 찾아보고 서예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친 부분을 內在的 측면과 外在的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조선시대에 향교가 설치되면서 제도적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향토 서예가들의 활동과, 둘째로는 제주에 부임해 온 목민관들과 유배객들이 제주 유생 및 서예가들에게 미친 영향, 셋째는 島外人 內陸地方이나 日本에

8) 龍紅, 『中國書法藝術』, 重慶大學出版社, 2006. p.17.

유학한 서예가들의 귀향 후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제주 초기의 향교는 고려시대 仁宗5년(1127년)에 특명으로 州·郡·縣에 설립되었는데 탐라는 高宗 때 濟州로 개칭하고, 州가 되어 고려 恭讓王 元年(1389년)에 儒學教授官을 分遣하였다. 濟州鄉校는 조선 태조의 즉위 초 1읍 당 1향교 설립 시에 설치되었고 太宗 16년(1416년)에 제주도가 행정구역상 濟州牧·旌義縣·大靜縣으로 三分되면서 기존의 제주향교 외에 旌義鄉校와 大靜鄉校가 설립되었다.⁹⁾

이러한 중앙의 제도적인 교육정책은 도민의 학예사상을 고취시켰고 학문과 서예발전의 모태가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자와 학문의 전래된 과정을 연구하고 제주서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표적인 서예가는 누구이며 서예발전에 영향을 끼친 목민관과 유배인들의 書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서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향토 학자들의 서예도 조사하여 그 서체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맥을 확인하며 시대별 육지의 유행서체와 제주 서체의 조형미도 비교 분석한다.

해방 후의 제주 서단의 형성 과정과 흐름도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제주 서예의 주체가 되는 서체의 整體性은 무엇이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2. 研究方法

제주서예의 源流란, 상고시대의 역사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조선조에 간행된 『耽羅誌』의 기록이나 『新稿韓國書藝史』에 의하면 고려의 명필은 탐라 星主 高適¹⁰⁾ 한사람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北齊州郡誌-

9)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濟州儒脈六百年史』, 學文社, 1997.10. p140.

下』에 의하면 “제주 서예는 조선시대의 제주 유배인 들에게 그 원류를 두고 있으며, 제주 서예사는 대체적으로 조선왕조 이후의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¹¹⁾ 라고 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기록은 『耽羅紀年』의 義例에 의하면 “본도가 開荒 이래 上下 數千載의 治亂·得失·交聘·通朝 등 가히 기술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賊路要衝인 까닭에 누차 兵火를 입어 載籍이 漫滅되어 지금에 비록 일일이 考證하고자 하나 이미 어려운 고로 編年을 高麗 太祖21년 戊戌로부터 光武10년 丙午로 그치고 그 이상은 여러 서적에서 채집하여 外書を 補作하니 또한 의심스러운 점은 의심으로 전하는 뜻에서 한 것이다.”¹²⁾라고 하고 있다. 제주 역사의 기록이 이와 같이 화재로 인하여 모두가 소실되어 불분명하다. 다만 『탐라기년』의 역사서도 金錫翼이가 여러 문헌에 조금씩 비치는 것을 모아 적어 놓은 것으로 공기관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서예 역사의 범위 또한 이런 기록의 범위 안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특히나 서예문화와 관련된 筆跡이나 遺墨은 공개되어 있는 것은 드물고 所藏處도 불분명하여 조사에도 어려움이 많다.

서예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墓誌石이나 碑文, 그리고 磨崖銘등의 자료를 발췌하여 살펴보고 제주 筆苑¹³⁾에 등재된 명필가(27명) 중 제1, 2, 3인자라 불리는 분의 작품을 분석하여 제주 서예의 흐름과 서예 형성의 원천이되는 될 가장 중요한 書跡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 전하는 碑가 濟州一高 운동장에 있다. 제주 일고에 있는 이 비는 勸學碑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나 글씨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글이 있어도 글을 모르면 소용이 없으므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無字碑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한다.

10) 洪淳萬, 『增補耽羅誌』, 京信印刷社, 2001.10. p.329.

11) 梁相哲, 『北齊州郡誌』, 北齊州郡誌編纂委員會, 2006. p.634.

12) 金錫翼, 『耽羅紀年』, 信一印刷社, 1976. p.333.

13) 洪淳萬, 『增補耽羅誌』, 耕信印刷社, 2004. P.338

제주에 들어왔던 목민관들이 써 놓은 磨崖銘에서 당시 육지의 서체 흐름을 파악해보고 제주의 비석문화의 발전과정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작품 분석은 조선 초기 송설체의 명필인 安平大君과 홍화각기를 쓴 高得宗과의 서체미를 비교하여 보고, 조선 중기 이후 韓石峯體의 출현과 뒤이어 東國眞體의 탄생이 조선 중기의 한국적 서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서예의 서풍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濟州鄉校의 교수를 지낸 吳靄의 필적인 〈嘉善大夫行縣監洪三弼墓碑〉와 〈鄉校移建上樑文〉을 보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추사가 제주 유배 중 추사에게 수학한 대표적인 제자들의 필체를 살펴보고 秋史體로 自學하여 一家를 이룬 洪鍾時의 작품과 추사 글씨의 조형미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추사 이후 추사체의 전수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 제주서예의 발전은 어떻게 되어 왔고 오늘날 제주서단이 있기까지의 과정도 문화 예술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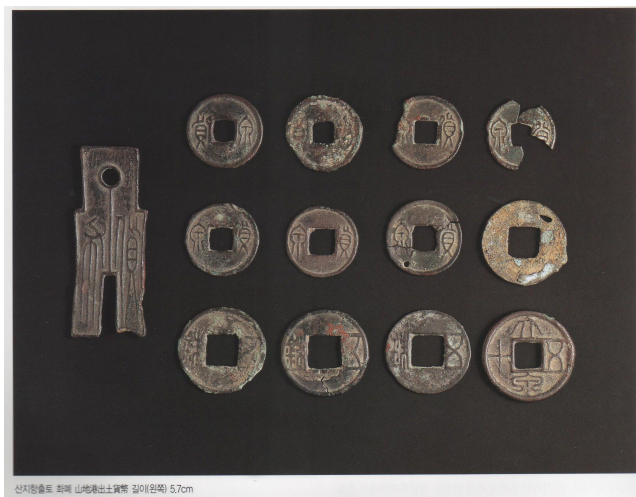
II. 濟州의 文化 形成과 學問

1. 漢字의 歷史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지와 신석기시대의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1만년에서 2만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제주의 역사는 三姓神話로 시작되는데 耽羅國의 開國은 B.C. 53년 高厚, 高淸, 高季가 신라에 入朝 星主, 王子, 徒內의 爵號와 탐라라는 국호를 받고 신라의 屬國이 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백제가 건국되자 백제의 속국이 되고 이어 주변국의 정세변화에 따라 流動하며 탐라는 고려에 隸屬 되었다가 고려 말 100여 년간 元의 지배를 받는다. 시련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星主體制의 집단 지도체제는 조선 초기 太宗代에 이르러 星主와 王子를 返納하으로써 耽羅國의 역사는 끝이 난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제주에서 학문의 유입된 시기는 언제이고 그리고 서예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탐라국에서 문자를 사용한 흔적은 『濟州道教育行政發展史』에 의하면 “沈括의 『夢溪筆談』에 고려 太祖 때 중국 蘇州지방에 표착했던 탐라인들이 지방관에게 보인 문서 중에 ‘글줄은 서로 綴하여져서 기러기 날아가는 行列과 같다[行則相綴如雁行]’라고 하여 한자가 아닌 文



(圖 1) 五銖錢

신지평울트 동경 山地產出土銅鏡 지름(전폭) 7.6cm

고 唐에서 탐라에 告한 문서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제주만이
사용하였던 문자와 한자를 並用하여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⁴⁾ 또한 제주항

[illegible]

축항 공사 시 발굴된 五銖錢·貨泉(동그란 것)·大泉五十·貨布(네모난 것)(圖 1) 倣製鏡(圖 2)·검코(劍鐔)와 삼양동 유적지의 玉環·동축(鐵莖符銅鑊), 금성 貝塚의 화천 등 발굴된 遺物¹⁵⁾들을 보면 漢나라 때부터 文物의

— 8 —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周知하다시피 五銖錢은 중국 漢武帝(기원전 118년)때 제작되어 隋代까지 사용하였던 주화이다. 또 신라 때 耽羅의 遠王(新羅 神文王 4년 684년)은 高支昌을 신라에 보내어 吏讀文字¹⁶⁾(圖 3)를 배워오게 한 것을 보더라도 한나라 때부터 탐라에서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類推할 수가 있다.

2. 學問의 傳來

우리나라의 한자 도입은 낙랑군 시대로 본다. B.C. 37년에 東明王이 高句麗를 建國하고 漢四郡의 세력을 몰아내었는데 낙랑군 시대에 呪文 정도로 여겨지던 한자문화가 그대로 남겨진 것이다.

이후 한자는 樂浪系 중국인과의 접촉과 교역으로 문자사용이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에 편리함을 깨달아 널리 이용하게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魏志』의 「東夷傳」에 따르면 南韓 출신의 廉斯鏞이라는 사람이 낙랑의 중국인과 문답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⁷⁾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耽羅國도 신라와 백제에 예속되면서 각국의 문화가 유입되었을 것으로도 보지만 인접국과의 무역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도 유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주에 유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다”¹⁸⁾고 한다. 따라서 제주에 한자가 전래된 시기는 한나라 시대 중국 및

15) 산지향 출토물:오수전은 기원전 118년 -隋나라까지 사용되었고, 대천오십, 화천(王莽의 天鳳1년, 신라의 南解王11년 때 사용), 화포는 新代 동전인데 대천오십은 기원7년 貨泉, 貨布는 기원14년 제작 후 후한광무제 기원40년 폐지되었다. 『제주의역사와문화』 2001.p.74. 및 『제주문화재 유적조사보고서』.1973. p.376.

16) 濟州道教育廳, 앞의 책, p.41. 吏讀文字(方音(新羅語)):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던 借字表記法의 하나. 吏讀, 吏吐라고도 한다. 설총이 창작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창작이라기보다는 그 때 까지 발달해온 借字表記法을 정리하여 경서를 우리말로 註解하고 새긴 것으로 보인다.

17) 金基昇, 앞의 책, p.145.

신라와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 초기의 교육 정책은 유교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관료 중심의 文治主義를 위한 과거 제도가 실시되면서 학문이 더욱 더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제도에서도 文科를 중요시하였던것은 문과의 경학과 문학이 지배계층의 자질과 사상을 함양시켜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成宗 때에는 ‘欲興周孔之風 冀致唐虞之理(주공과 공자의 풍화를 일으켜 堯, 舜의 다스림을 이루고자한다.)’¹⁹⁾라 하여 당나라의 과거 제도와 정치이념을 도입하여 유교의 이념과 윤리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삼으면서 더욱더 가속화 되었다. 과거 제도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 지방에서는 線上되는 鄉貢과 중앙의 國學生인 士貢 및 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해, 중앙 귀족의 자제와 지방 호족의 자제들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경제적 기반과 함께 무력 지배세력인 호족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만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에 진출하였으나 학문적 전통이 낮은 호족들은 과거에 급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여간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소수 호족출신들에게 과거급제의 혜택이 주어졌는데 耽羅星主 高自堅의 손자 高維가 靖宗11년(1045년)에 南省試 장원 및 禮部試에 합격하고, 고유의 아들 高兆基가 睿宗2년(1107년) 禮部試에 합격하고,²⁰⁾ 高兆基 손자 高適이 元宗2년(1261년)에 禮部試에 합격하였다.²¹⁾

『瀛州誌』²²⁾에 의하면 “高麗太祖 21년(938년)에 太子 末老를 보내 조공하니 高維가 비로소 벼슬을 시작하였다.”²³⁾고 한다. 고유가 靖宗 11년에

18)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203.

19) 國史編纂委員會, 『高麗史』, <http://db.history.go.kr/>. 권제 74. 選舉志 學校條, 成宗5年.

20) 鄭以五, 『東文選. 星主고씨家傳』, 韓國古典翻譯院, 1998. 권지.101.

21)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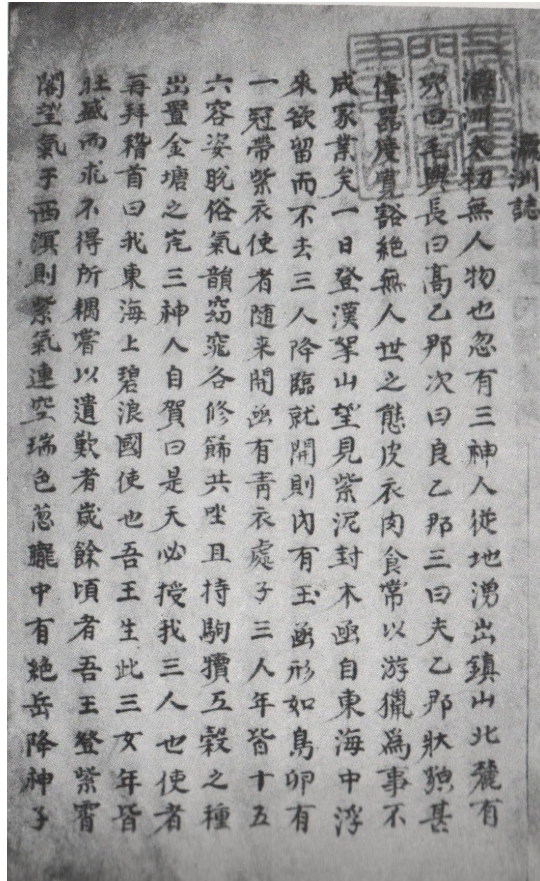
22) 김황수, 『耽羅文獻集』, 信一印刷社, 1976.1. p.2.

南省試 및 禮部試에 합격했으므로 이 瀛州誌(圖 4)를 쓴 시기는 高兆基가 睿宗2년(1107년) 禮部試에 합격하기 이전에 쓴 글씨라 볼 수 있다.

고려시대 탐라의 사회교육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다. 불교가 언제 제주에 들어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八關會와 같은 祈願佛師 참석이나 大藏經 組版불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八關會의 참석은 靖宗의 즉위(1034년)시 星主의 직분으로 高維가 참석하였는데 이러한 因緣으로 科擧及第의 施惠를 받는다.²⁴⁾

고려 元宗14년(1274년) 麗夢연 함군이 토벌작전으로 三別抄軍이 제주에서 전멸하고 忠烈王2년(1276)에 元나라는 達魯花赤(장관)을 파견함으로써 제주는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때 朱子學의 이론에 따른 유교적 實踐主義가 도입되었다.²⁵⁾

또한 고려시대부터 제주도는 流刑地 섬으로 元나라의 왕족 達達親王등 80여 호가 귀양 왔다. 恭愍王 3년(1391년)에는 明의 황제가 雲南縣王의 자손 愛顔帖木을 제주에 안치시켰고, 元의 王族인 伯伯太子등과 同居하도록 하여 지금의 제주시 삼양동 元堂峰 부근에 定着하도록 하였다. 이때 元나



(圖 4) 瀛州誌 (1107년)

23) 高在珽, 『濟州高氏大同譜上世篇』, 朗州印刷社, 1983. p.42.

24) 濟州道教育廳, 앞의 책, p.67

25)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100.

라의 성씨 趙, 石, 李, 肖, 姜, 鄭, 張, 宋, 周, 秦 등 열 개의 姓이 들어와 귀화하고, 梁, 安, 姜, 對 네 개의 성은 明나라 초기에 온 성씨이다.²⁶⁾ 고려 후기 유학을 제주도에 전파한 인물은 고종 때, 제주부사를 지낸 崔滋로 그는 北宋의 歐陽修, 蘇東坡, 黃山谷 등의 詩話文學을 받아들여 제주의 儒家 哲學的 評論詩文思潮를 振作 시킨다.²⁷⁾

조선시대 제주의 교육은 중앙집권체제를 돈독히 구축하기 위하여, 性理學的 정치이념의 보급에 진력한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교육기관은 향교로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하여 一邑 一校의 원칙에 따라 군현에 설립하였고 官學機關으로서 공자를 奉仕하기 위한 지방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향교는 고려 仁宗5년(1127년)에 세워졌는데 제주에는 濟州鄉校가 太祖 元年(1392년)에 세워지고 정의와 대정향교는 1416년도에 세워졌다. 교육은 漢學(四書五經)과 書藝(해서와 행서)를 하여 土官子弟들을 國試에 나가게 하였다가 차츰 富裕層子弟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교육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牧民官과 流配客들의 학문과 서예의 영향까지 받으며 과거에 급제하는 유생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甲午改革 이후 新學制가 실시됨에 따라 향교는 교육적 機能이 없어지고 봄·가을 釋奠을 奉行하는 위치로 돌아왔다. 지금 제주향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돼 있고, 문묘 안에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유학인재를 양성하는 明倫堂과 五性の 아버지 위패를 봉안해 제사를 지내는 啓聖祠가 있는데, 지금도 향교의 명륜당에서는 지역의 漢文學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제주대학교 교수에 의해 『論語』와 『孟子』가 講論되고 있다.

26) 金奉鉉, 『濟州島流入傳』, 耕信印刷社, 2005. p.41.

27)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p.100.

Ⅲ. 濟州 書藝 形成의 外在的 要因

1. 牧民官들의 서예

제주도의 학문과 서예의 발전에 있어서는 목민관과 유배인, 그리고 추방된 정객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 제주의 유생들에게 있어 학문적인 영향을 끼친 유배인과 관료는 현재의 五賢壇에 배향되어 있는 沖菴 金淨(1520), 圭庵 宋麟壽(1534), 淸陰 金尙憲(1601), 桐溪 鄭蘊(1614), 尤庵 宋時烈(1689) 등이 주목된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의 韓蕡과 許遜, 조선조에 艮翁 李瀾(1611, 광해11), 金正喜, 崔益鉉, 金允植, 朴泳孝, 任觀周, 趙貞喆 등 많은 유배인들이 있으나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다. 단지 남아 있는 금석문의 순서로 몇 사람의 書跡을 살펴보고자한다.

1) 朝鮮 前期의 목사 奇虔

태조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고 고려의 인재들을 등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入朝를 거부하는 金萬希, 李美등을 제주도로 귀양 보냈고²⁸⁾ 왕자의 난 때 시해된 태조 李成桂의 繼妃 神德王后康氏의 사촌 오빠 康永이, 태종이 등극하자 1402(태종 2년)년에 제주로 유배 와서 제주 入道始祖가 되었다. 康永²⁹⁾의 〈墓誌石〉(圖 5)은 1443년(세종 25)에 제주 목사로 부임해 온 奇虔 목사가 무덤을 찾아 쓴 것으로 “信川康永監司壬寅隱跡於斯 有禎福萬三子有忠義青坡志”³⁰⁾라고 쓰여 있다. 이 묘지석은 1937년 발굴하였는데 오래된 金石文의 발굴로는 제주 최초의 유물이 될 것이나 이 묘지석

28) 洪淳萬, 『濟州文化藝術白書』, 日新畝社印刷, 1988. p.28.

29) 金奉鉉, 『濟州道流人傳』, 耕信印刷社, 2005. p.68.

30) 金奉玉, 『濟州通史』, 세림, 2000. p.132.

은 다시 묘 앞에 묻었다 한다.

康永의 후손 중에는 艮齋 田愚(1841-1922)에게 수학한 서예가 康用範이 있다.

奇虔목사는 청렴하고 인정이 많아 그가 제주에 있을 때 해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전복을 먹지 않았고, 버려져 있는 시체들을 수습하여 埋葬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그 혼령들이 꿈속에서 ‘우리들의 뼈가 비바람에 바래지 않게 해주어 고맙고 얼마 없어 자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기건목사는 아들 셋 다 후손이 없었다가 그 후 손자를 얻었다는



(圖 5) 墓誌石

고사가 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는 도민들이 모두 모여 부모와 헤어지 듯 목메어 울었다고 한다.

奇虔목사의 묘지석은 기록문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서체의 형태는 오랜 세월 땅속에서 녹아내려 선명하진 않지만 唐의 다보탑비의 흔적도 보인다. 제주의 石質도 변변치 못하지만 제주의 금석문이라 할 수 있는 비석과 글씨를 보면 당시의 刻字 기술도 그다지 익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추정되는 비가 대정향교에 있었다. 이 비의 전면에는 “縣監權克中尊聖愛士碑”(圖 6)라 쓰여 있고 후면에는 “康熙元年壬寅七月二十三日立”(圖7)라고 건립 연대가 적혀 있다. 康熙 원년은 1662년이고 權克仲은 1653년 李元鎮 목사



(圖6)縣監權克仲碑前面



(圖7)縣監權克仲碑後面



(圖 8) 韓應浩碑



(圖 9) 禾北포구碑



(圖10)禾北비석거리碑

재임 시 대정 縣監으로 하멜이 대정읍 신도2리 해안가로 표류하여 왔을 때 일을 잘 처리 하여 知瀛錄³¹⁾에도 올라 있고 同年 대정향교를 지금의 자리로 移設하는 등 많은 공로를 세워 그를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비의 형태는 전면은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있고 뒷면은 이끼가 끼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의 그림(圖 8, 9, 10)처럼 불과 이백 여 년 전의 비문이 제주의 비바람에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보며, 이것을 환경 때문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韓應浩碑〉(圖 8)는 현재 목관아지에 세워져 있다. 使相 韓應浩는 1832(純祖32)년에 牧使 兼 防禦使로 부임해 와서 백성들의 飢餓를 救恤 하였고 오등동에 南學堂, 상가리에 西學堂을 개설하는 등 도민들의 학문과 按撫에 힘써 그를 기리는 마음에 도민들이 세운 去思碑이다. 이러한 비석들은 장차 제주의 역사를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2) 朝鮮 後期の 목사 洪重徵

제주 곳곳에는 제주를 거쳐 간 목민관들과 유배객들이 남긴 磨崖銘과 비문이 있는데 이 磨崖銘들은 제주 사람들의 서예의 연구와 습자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洪重徵목사는 호는 梧泉이고 판서 萬朝의 아들이다. 1711년 (숙종37)에 진사가 되어 관직에 오르면서 1743년에는 병조참판을 거쳐 호조참판이 되었다. 1754년에는 공조판서에 이르러 耆老所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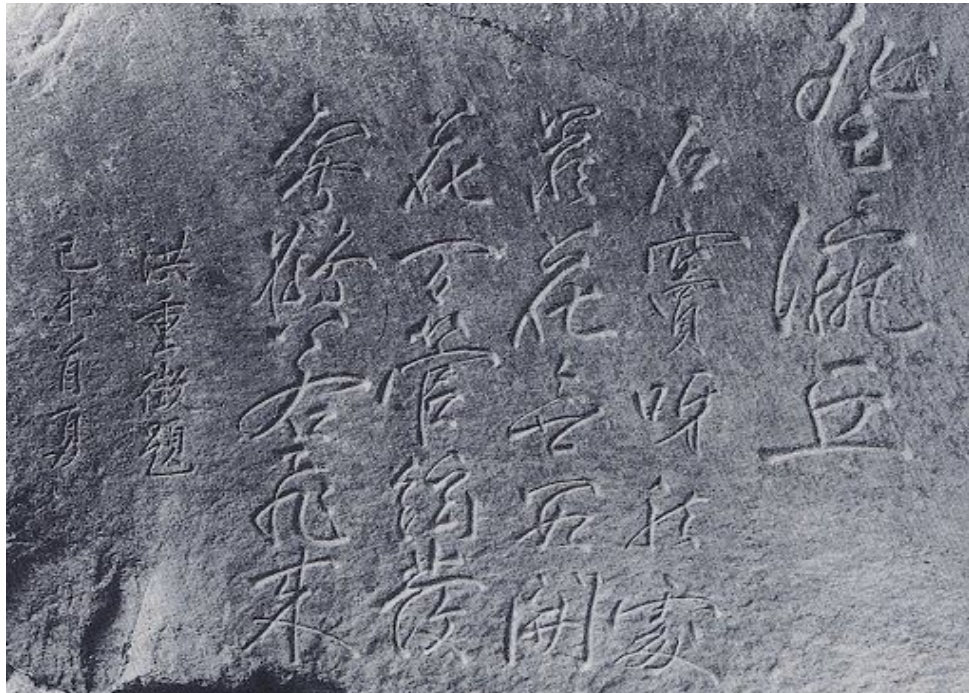
문장이 능하여 주역을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고 80세에 승록대부에 올랐다.

〈登瀛丘〉(圖 11)는 홍 목사가 시를 직접 짓고 행초서로 서사했는데 고

31) 『知瀛錄』:李益泰목사가1694.5.~1696.2.재임시 제주역사기록서

르지 못한 바위 위에서도 획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점이 생동한다.³²⁾

訪仙門의 題詠 中 제일로 평가 받고 있는 洪重徵은 1738년(英祖14) 10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왔는데 유생들을 맞이함에도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였고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며 문장과 글씨가 능하여 많은 저서를



(圖 11) 登瀛丘

남겼다. 登瀛丘 시 한편을 해석하여 보면 방선문의 절경이 詩 속에 보인다.

石竇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來

洪重徵題 乙未 首夏

바위의 큰 구멍이 입을 벌린 곳

돌이끼 꽃 바위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라.

꽃 속의 음악 소리 따라

난새와 학새가 날아드는 곳

32) 禹瑾敏, 『濟州道 磨崖銘』, 耕信印刷社, 2000. p.52.

3) 朝鮮 後期の 목사 趙貞喆

목사 趙貞喆의 書跡으로는 義女 洪允愛의 비문이 있다. 1762년(英祖 38) 思悼世子の 폐위와 賜死事件으로 時派와 僻派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1777년(正祖1년) 正祖가 즉위하면서 정권을 잡은 老論時派는 반대파인 老論僻派를 제거하며 조정철을 제주로 유배 보낸다. 조정철은 유배 중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마침 노론 시파의 徹天之怨讎인 金蓍耆 목사가 부임해 와서 조정철을 죽일 결심을 하고 洪允愛³³⁾를 불러 조정철의 죄상을 캐기 위하여 拷問을 하다 杖死한다. 그로부터 28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再 登用된 조정철은 181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사랑하던 여인의 무덤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시를 지어 바치고 비를 세운 것이 〈洪義女之墓碑〉(圖 12)이다.



(圖 12) 〈洪義女之墓碑〉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瘞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天
黃泉路遽歸何賴 碧血藏深死亦緣
千古芳名蘅莊烈 一門高節弟兄賢

33) 洪淳萬, 『濟州의 女人象』, 제주문화원, 1998. p.80.



鳥頭雙闕今難作 青草應生馬鬣前

옥 같던 그대 얼굴 묻힌 지 몇 해던고
누가 너의 원한을 하늘에 호소하랴.
황천길은 먼데 무엇 의지해 돌아갔을꼬.
정의를 위한 피 깊이 묻고 죽어
이 또한 인연이라.
천고에 아름다운 꽃 그 이름 높으리.
한집안 높은 절개 모두 어진 자매라
烈女 旌門 지금 세우기 어려운데
푸른 풀만 말갈기 같이 우거져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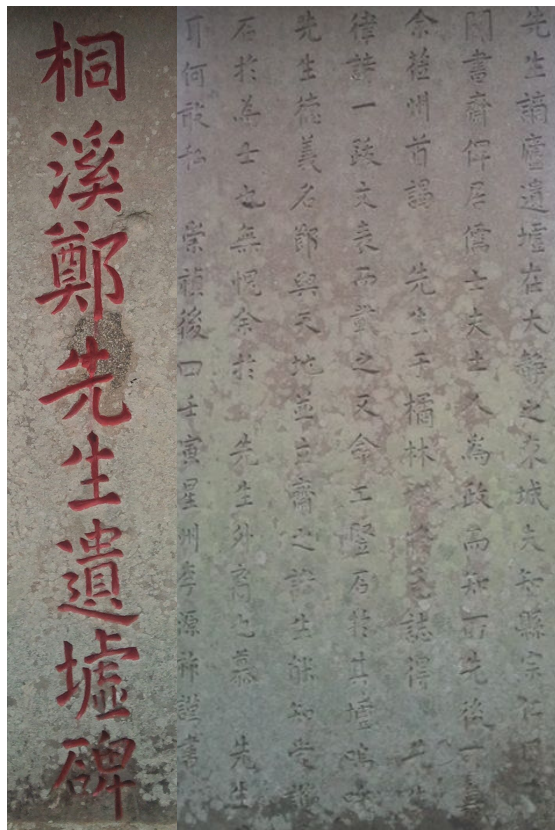
이 비의 글씨(圖 13)를 보면 떨리고 鬱
憤에 찬 마음으로 쓴 흔적이 보이는데 송
설체처럼 미려한 미는 없지만 투박하고 고
졸한 미가 보인다. 字形으로 보면 唐의 晉
祠銘의 글씨처럼 보인다. 그리고 줄이 바
르지 않은 것도 목사가 글 쓸 때의 기분이
안진경이 祭姪稿를 쓸 때의 기분이었으리

(圖 13) 洪允愛碑文 -詩
라 생각한다. 그러나 목사의 기상이 배여 있는 힘찬 서풍이다. 이 밖에 조
정철의 글씨로는 한라산 정상에 마애명이 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祖父,
叔祖父, 父親에 이어 본인까지 제주로 유배되는 운명이 있었다. 그는 이런
연유 때문인지 제주 민초들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푸는데 특히 12과원을
설치하여 감귤을 재배하게 하였으며 賦役이나 貢賦로 도민들이 과중한 부
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洪允愛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郭支의
朴秀榮에게로 시집을 갔는데 묘는 손자인 朴奎八墓 옆에 같이 있다. 추사
의 삼족제자인 朴季詹이 傍系孫이 되고 제주 藝術人村에서 서예활동을 하
는 東江 趙守鎬 선생이 조정철 목사의 방계손이 된다.

4) 朝鮮 後期の 목사 李源祚

이원조(1792~1871)는 본관이 星山이고 호는 凝窩이다. 철종과 고종 때의 성리학자로 立齋 鄭宗魯와 定齋 柳致明의 문하에서 주자와 퇴계로 이어지는 主理論을 견지하였고 퇴계의 적통으로 영남학맥이 領袖가 되었다. 1809년(순조9) 별시문과로 급제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 하여 태풍으로 허덕이는 도민을 위해 호남지방의 倉米를 방출하게 하여 饑饉을 해소하였고 1842년에는 桐溪 鄭蘊의 謫廬遺墟碑를 大靜 東文帛에 세우고 직접 비문을 썼다. 1843년에는 松竹祠를 건립 鄭蘊을 奉享하였는데 비문의 말미에는 「余於先生外裔慕先生公耳何敢死」라 하여 外後孫으로 보인다.

또한 동년 永惠祠 동쪽에 橘林書院을 창건하고 고득종의 위패를 모셨으며 三泉書堂을 중수하였다. 목민관으로 유생들을 열흘마다 시험을 실시하여 실력향상에 노력하였으며 望京樓에서 유생 69명을 試取케하여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각 학당에 머무르게 하고 도민들에게 勸善懲惡을 가르치게 하였다. 비문(圖 14)의 글씨를 보면 唐代 圭陽舜의 구성궁체의 書風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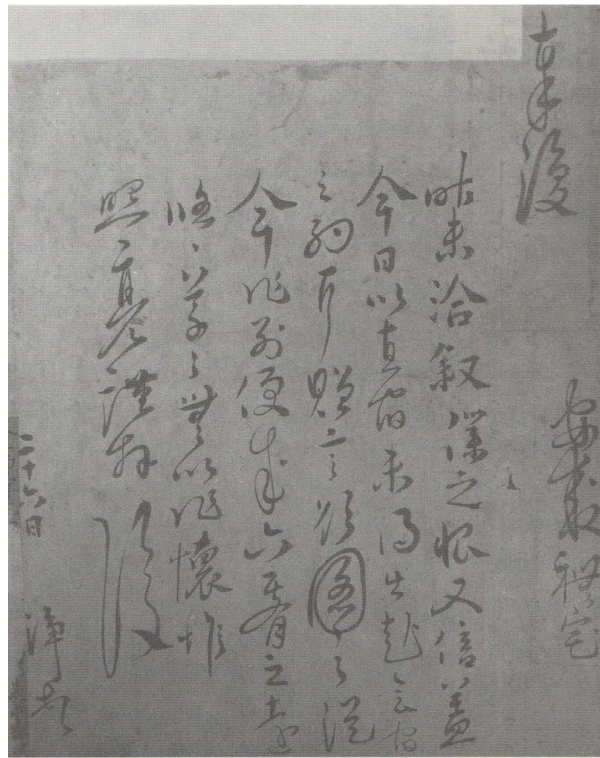
前面部 (圖14)李源祚書桐溪遺墟碑

2. 流配客들의 서예

1) 朝鮮 前期의 명현 金淨

沖菴 金淨(1486~1521)은 1519년 己卯土禍 때 趙光祖 등과 함께 투옥 됐다가 금산·진도에 이어 제주로 이배되어 왔다. 그가 제주로 온 것은 기묘사화 이듬해인 1520년 여름이다. 그는 제주 읍성의 동문 밖 금강사지에 살다가 1521년 가을 賜藥을 받을 때까지 1년 2개월간 제주 유생들과 교유를 가졌다.

性理學의 典範이라할 수 있는 金淨은 제주에 유배 중 많은 유생들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제주향교 교수 金良弼과 유생 문세걸이 그에게 師事하였다고 한다. 김양필은 제주의 삼대 명필로 필원에 올라 있다. 김양필의 書跡은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어떤 체를 즐겨 썼는지 알 수 없다. 金淨은 글씨는 물론 翎毛圖 등의 그림에도 능하여 그 영향이 상당하였으리라고 본다. 金淨의 글씨로는 1519년 경 구례감찰에게 보낸 간찰(圖 16)이 국보(1198)로 지정되어 있다. 글씨는 명나라의



(圖 16) 金淨의 簡札 草書

張弼의 서풍에 영향을 받은 듯 분방한 운필을 구사하였으며 조선 전기 四

大家의 한사람인 自庵 金絿(1488~1534)를 비롯한 己卯名賢들이 구사했던 서풍과 공통점이 많다.

金淨의 해서와 행서는 당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왕희지에 바탕을 둔 글씨로 세로로 긴 짜임이 보인다.³⁴⁾ 제주 유배 중 유생들과의 교류는 그가 당시 제주목사 이운의 부탁으로 「한라산 祈雨祭文」을 짓고 『제주 風土錄』을 남긴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金淨은 도민의 교화에 널리 힘써 이후 1545년 관작이 회복되고 宣祖11년(1578)에 沖菴廟를 세웠는데 뒤에 橘林書院이 세워지자 그곳에 배향되고 五賢의 한 사람이 되었다.

2) 朝鮮 後期の 大儒 宋時烈

宋時烈은(1607~1689) 호가 尤庵, 華陽洞主이고 金長生, 金集(1547~1656) 父子의 門人이다. 李栗谷系의 성리학자로 유림의 大宗師로 반세기나 군림하였고 생원시에 一等 합격하여 大科 응시 자격을 얻었으나 文科及第하지 않고 大 政客이 된 실력자였다.



(圖 17) 宋時烈이 〈曾朱壁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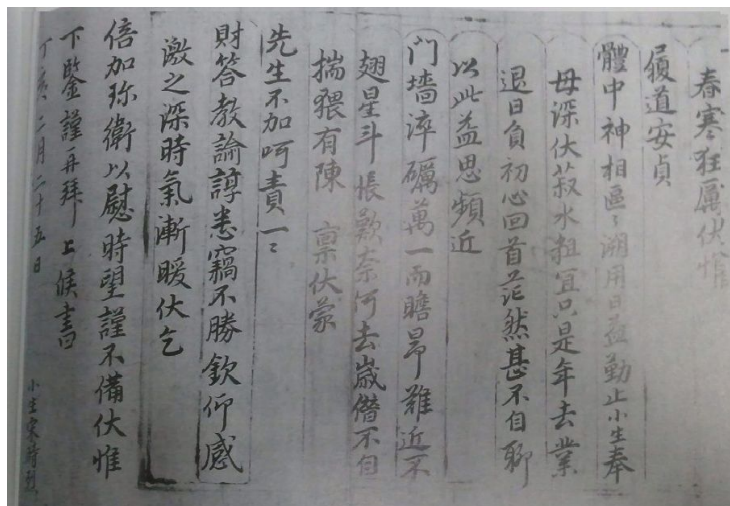
孝宗의 師傅로 孝宗이 등극하자 掌令에 등용되고 이어서 子侍講院進善을 거쳐 執義에 승진하였다. 정계에서 老論派의 영수로 군림하였는데 禮訟 문제로 南人派에게 밀려 유배된다.

34)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477.

1680년 肅宗6년 南人정권이 실각하자 다시 領中樞府로 등용되었다가 정계를 떠나 隱居하였다. 1689년 왕세자(後의 景宗)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에서 안치되었다. 83세에 제주로 온 송시열은 100여 일간 산짓골에 살다가 조사를 받기위하여 상경 도중 南人派의 책동으로 賜藥을 받고 井邑에서 객사하였다. 송시열은 제주유생 김성우등이 肅宗에 상소해 橘林書院에 배향되었다.

五賢壇 서쪽 암벽에 새겨진 〈曾朱壁立〉(圖 17)이 송시열의 글씨이다.

원래는 서울의 성균관 북쪽 벼랑에 새겨져 있었는데 제주출신 변성우가 1786년 성균관 直講으로 있을 때 탁본해 온 것을 五賢壇 서쪽 암벽에 陰刻으로 옮겨 새겼다. 송시열은 율곡 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주자학에 바탕을 둔 그는 道藝一致的 서예의식이 반영되어 石峯體를 근간으로 한 안진경과 朱子體가 혼재되어 있는 필법을 구사하였다. 尤庵은 서예에 있어 書者의 정신이 드러난 心劃을 강조하였고 글씨보다 사람과 道를 사랑하는 愛人과 愛道의 심화된 인식을 강조하였다.³⁵⁾ 특히 송설체로 大字體를 잘 썼으며 서간체(圖 18)³⁶⁾도 잘 썼다. 필치는 안평대군보다도 더욱 한국적이라는 평이 있다. 필적은 南海의 〈李舜臣忠烈廟碑〉 등 명사들의 비를 많이 썼다.



(圖 18) 金尙憲에게 보낸 편지

35)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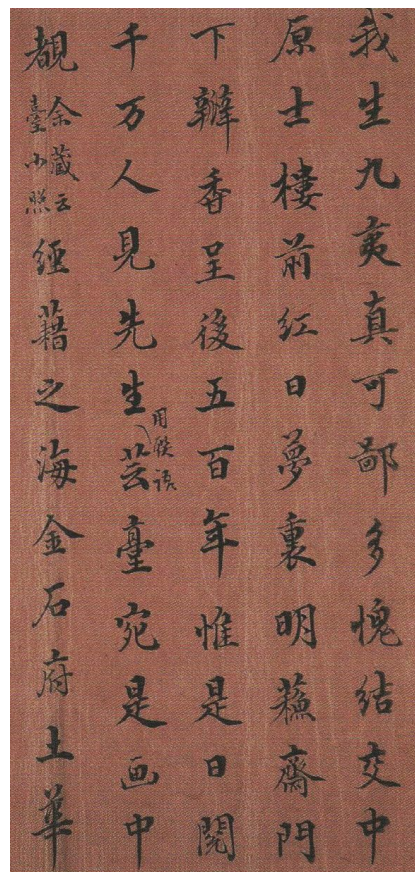
36) 丁亥(1647)2월 25일 金尙憲 대감께 올린 편지

3) 秋史 金正喜와 그 門徒

金正喜(1786~1856)는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이다. 김정희의 자는 元春이고 호는 秋史, 또는 阮堂, 禮堂, 詩庵, 果坡, 老果, 老鬲, 覃研齋, 勝蓮老人 등 200여개이고 본관은 慶州이다. 순조 9년(180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純祖24(1819)년에 문과 급제하여 규장각 待敎에 제수되었다. 충청도 어사가 되었을 때 直指의 풍도가 있었고 大司成을 거쳐 兵曹參判에 이르렀다.

헌종 6년(1840)년에 尹尙道の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읍 안성리에 서 위리안치 되어 9년간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20세 이전에는 北學派 문사들의 영향을 받아 청조의 고증학을 바탕으로 서예에 매진하게 되었다. 1809년 10월 24세 때는 생부 金魯敬이 冬至副使로 연경에 갈 때 子弟軍官의 자격으로 동참 이듬해 3월까지 머무르는 동안 翁方綱과 阮元을 만나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그는 처음에는 오로지 顏眞卿과 董其昌의 서법을 따랐는데 중국에 다녀 온 뒤로는 歐陽詢법을 따랐다. 완원은 서법에서 첩학을 배제하고 비학을 강조하며 『南北書派論』과 『北碑南帖論』의 글을 내어 당시의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던 중이어서 추사가 완원을 만나 法帖과 碑學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얻었고 또 그가 가장 숭앙하는 翁方綱이 구양순체를 썼기



(圖 19)離別詩筆跡-24세

때문이다. 북비남첩론에는 ‘北方의 楷書는 고대의 隸法을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南方에서의 書法은 隸書의 筆意를 상실하였다. 그 이유는 북방의 글씨는 碑學에서 전승되었고 남방의 글씨는 法帖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추사는 연경 이후 50대 중반까지는 歐陽詢을 바탕으로 한 翁方綱風의 글씨를 쓰다가 유배 이후에는 예서, 해서, 행서에서 완전한 自己風의 서체를 창출해 냄으로서 추사는 학문으로나 예술로 대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⁷⁾



시기별 서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圖 19)은 추사가 燕京에서 翁方綱을 (圖 20)暗行御史 時 (1825)

만나고 헤어질 때 칠언절구의 이별시를 썼는데 당시 젊은(24세) 시절의 필체와 서풍을 알아볼 수 있다. 추사가 연경에 가기 전의 필체와 서풍이 고스란히 나오고 글씨의 짜임이 질서정연하고 均齊的으로 썼으며 강한 획이 보인다. 약간은 조심스럽게 쓴 느낌이 있으며 말년의 서체처럼 아주 힘찬 획은 아직 안 보인다.

다음(圖 20)의 해서는 추사가 암행어사 시절(41세)의 서체로 젊음이 넘치는 시절의 글씨이다. 이때만 하여도 해서의 서풍은 안진경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金鳳喆碑文〉(圖 21)은 제주 유배 시 朴季詹 제자 덕에 留宿時 써 준 해서체의 비문인데 金龍徵의 부친비문이다. 이 글씨를 보면 추사의 세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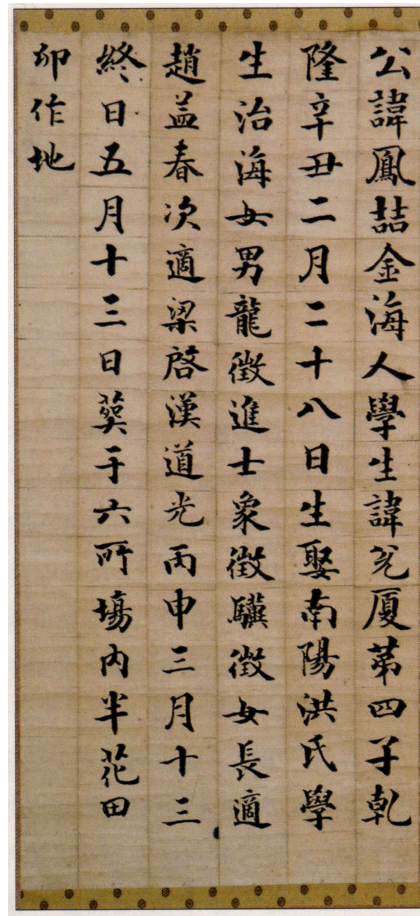
37)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479.

의 발문의 글씨와 똑같은 글씨체로써 추사가 제주 유배 중 완성된 추사체의 해서라고 할 수 있다. 추사가 제주 유배 시기는 모든 학문과 예술이 聖人의 수준에 이르러 기교와 형식이 배제된 無我的 정신세계 속에서 발산되었다. 이러한 서체의 비교는 完熟기에 이르는 과정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예술적 기능과 완성도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時代的으로나 歷史的으로 한 사람의 流配人이 그 지역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추사는 政治的 背景과 學問 그리고 명필로서 名望이 높았기 때문에, 추사의 유배는 학문과 정보가 빈약한 제주 유생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론 좋은 기회로 여겼다.

추사가 제주에 오면서 제주의 유생들은 너도 나도 추사에게 공부하러 몰려들었는데, 보성리 姜道渾(1816~?), 광지리 朴季詹, 유수암리 姜基奭, 조천리 李漢震, 李基肇, 李時亨, 金麗錐, 姜師孔, 金左謙, 洪錫祐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姜道渾은 난초를 잘 쳤고, 朴季詹은 글씨가 뛰어났으며 李漢震은 詩가 뛰어났다. 이후 李漢震과 姜琦奭은 秋史 筆意로 과거를 보아 합격을 한다.

姜師孔은 대정향교 훈장을 지냈으며 추사가 유배오자 찾아가 〈疑問堂〉이라는 해서체의 글씨를 받고 吳在福에게 각자를 시켜 鄉廟 同齋에 懸板



(圖 21) 〈金鳳喆碑文〉

하였고 大成殿 정원에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태풍에 꺾여 잘리고 지금은 한 그루가 남았는데 그 나무 모양이 추사의 歲寒圖에 나오는 소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어 여기를 찾는 탐방객들이 세한도의 소나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소나무의 수령이 200년이 되었다는 것은 대정향교의 역사를 말 해 주기도 한다.

다음은 그의 삼죽제자와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제자들의 書跡이다.

(1) 姜道渾

강도훈(1816~?)은 추사가 적거하던 집주인 姜大圃의 아들이다. 추사가 처음에는 포교 송계순의 집에 머물렀으나 몇 년 후 강도훈의 집으로 옮겼다. 이에 강도훈은 추사에게서 글씨와 그림을 배웠는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강도훈은 추사 선생의 서울 심부름도 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주강씨 대동보에 「秋史 金正喜 門人 九年間 授受」라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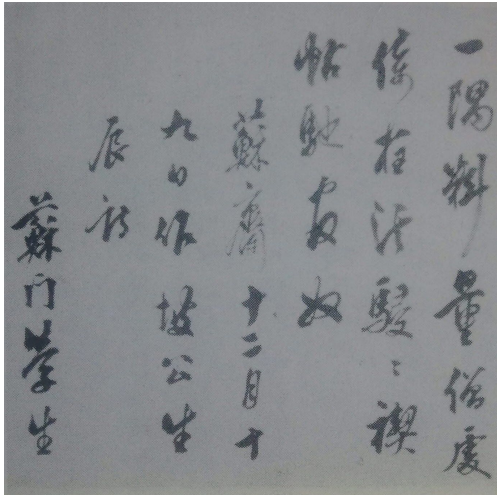


(圖 22)姜道渾의 歸思

추사가 거처하던 집은 1948년 제주도 4·3사건 때 불타고 빈터만 남은 것을 1984년 강도훈의 曾孫의 고증에 따라 다시 지어져 현재는 추사적거지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謫居地는 주인이 살았던 안거리(안채), 사랑채인 밖거리(바깥채) 한쪽 모퉁이에 있는 모거리(별채), 통시와 대문간, 방앗간, 정당으로 이뤄졌다. 추사는 밖거리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쳤고 모거리에 기거하며 추사체를 완성하고 〈歲寒圖〉(국보 180)를 남겼다. 歸思(圖 22)는 강도훈이 쓴 추사체의 글씨로 일부만 나타난 것이나 추사의 영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2) 金九五

金九五(1822~1900)는 호가 蘇齋이고 본관이 김해로 제주시 金在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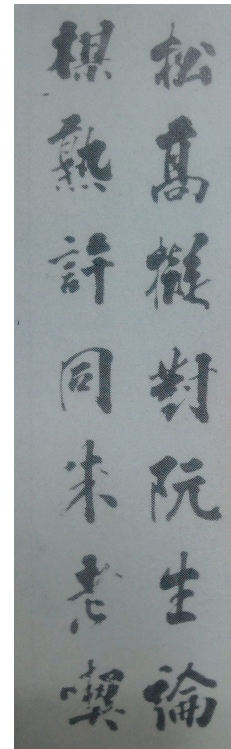
(圖 23) 金九五 筆

장남이다. 김정희가 유배오자 약 관인 19세의 나이에 문하에 들어 갔는데 추사가 그의 글씨를 보고 “이런 꼬불꼬불한 시골에 이 천기야말로 淸妙하네 聖天의 천부적인 재주가 어찌 북두의 아래라 해서 또는 남극의 변두리라 해서 다르겠는가!”고하였다. 김구오는 이때 부터 떠날 때까지 지도 받아 대성했으며 그의 글씨(圖23)는 아들

金魯鉉에게 전해졌고 아들은 손자 金義南에게 전해진다.

(3) 朴季詹

朴季詹은 호가 惠百이고 애월읍 곽지리이다. 향리에 서는 수재라 불리 울 정도로 똑똑하였고 姜道渾 金九五와 함께 삼족제자로 추사의 사랑을 받았다. 추사의 동생은 추사가 제주 유배 시 추사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朴季詹과 金九五를 소동파의 향주와 담주에 좌천되었을 때 가르쳤던 趙德과 姜唐佐에 비유했다. 해백이 추사에게 書의 源流를 터득하는 법을 청하자 “王羲之를 들어가려면 먼저 歐陽詢과 褚遂良을 통하여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鍾繇와 王羲之에 접속하려드니 이는 곧장 문 앞길도 밟지 않고 아랫목을 밟겠다는 격이 된다.”라고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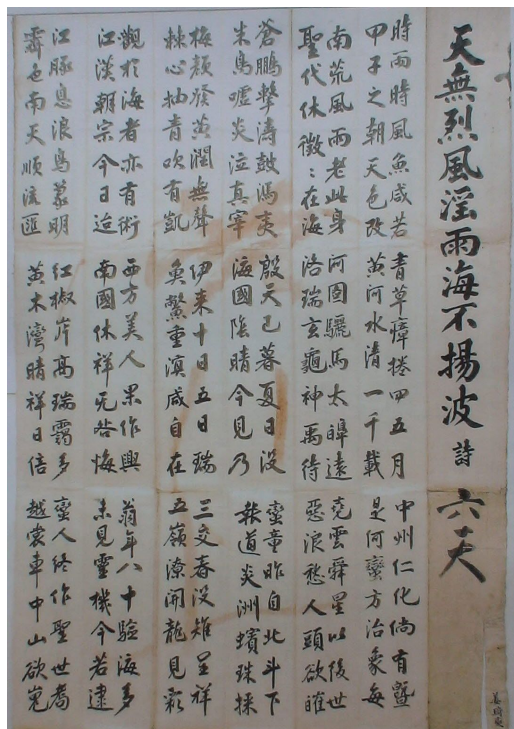


(圖24)朴季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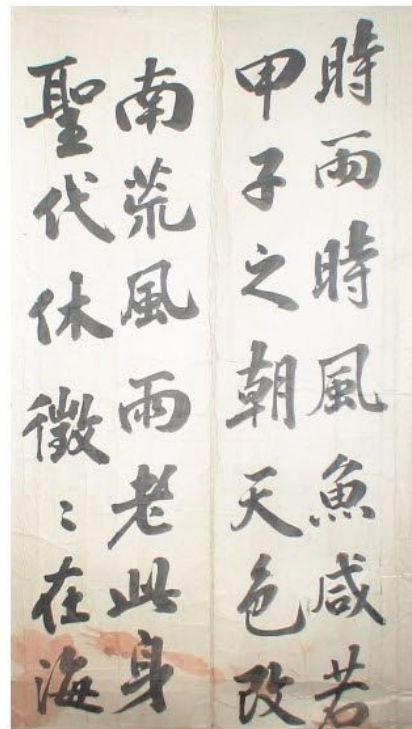
다. 혜백은 추사를 모시는 동안 완당 印譜錄을 만들었는데 모두 180여개가 된다. 혜백은 추사가 방면되어 서울로 갈 때 같이 따라 나섰는데 서울 선비들과 柳亭이라는 詩題를 놓고 才能을 겨뤘는데 재주가 너무 뛰어나 시기한 자들이 毒酒를 먹여 죽여 버렸다. 작품 “梅熟許同朱老喫 松高擬對阮生論은 매화가 익었으니 주로와 함께 먹고, 솔이 높으니 완생을 대하여 논하고자 하노라.” (圖 24)는 박계첨의 글씨로 추사의 필법을 통달한 형태이다.

(4) 姜琦奭

姜基奭(1822~1878)은 애월읍 유수암리 부친은 姜愈彬이다. 추사가 유배 오자 1842년 8월 적거지로 가서 사숙을 하며 공부했다. 이때의 동문 受學生 중 金九五 朴季詹은 서예, 姜道渾은 사군자, 李漢震 姜琦奭은 道學을



(圖 25) 姜琦奭의 科學試驗紙



(圖 26) 姜琦奭의 科學試驗紙

공부했다. 1858년(철종9) 司馬試 進士에 급제하여 제주향교 도훈장을 지냈다. 1852년 沖菴 金淨 謫廬碑 建立을 제주목사에게 건의하였고 1853년 왕명이 내려지자 제주의 유생들과 같이 謫廬遺墟碑를 세웠다.

그는 1874년 면암 최익현이 제주로 유배오자 그와도 교유하였다.

(圖 25, 26)는 그의 진사 합격시험지로 현재 도남동에 사는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字形은 추사체처럼 굵고 가늠이 있으며 轉折이 묘하게 되어 있다.

(5) 李漢震

이한진(1823~1881)은 朝天里 출신이고 호는 梅溪이다. 전주이씨 계성군파이고 효성이 지극하여 三年喪을 넘기고 나자 병을 얻어 부친 忌日 날 家率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낸 후 부친을 모시고 가겠다면 자리를 바르게 하고 임종했다’ 한다.

신촌리에 〈梅溪 遺跡碑〉(圖 27)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선생의 행적과 덕을 닦는 것은 이미 三綱에 나열되어있고 문장 또한 남쪽지방에서 으뜸이다” 하였다. 제주의 瀛州十景을 지었는데 그 문장이 流麗하다. 비문은 강용범의 글씨로 보인다.



(圖 27) 梅溪 遺跡碑

李漢雨라고 한 것은 왕가의 세보를 새로 만들 때 震자를 피하여 雨로 고치도록 명하니 이때 한우로 改名되었다. 추사가 대정으로 유배 오자 단숨에 달려가 문하생이 되기를 청하였으며 道學에 열중하였는데 그는 여러 제자를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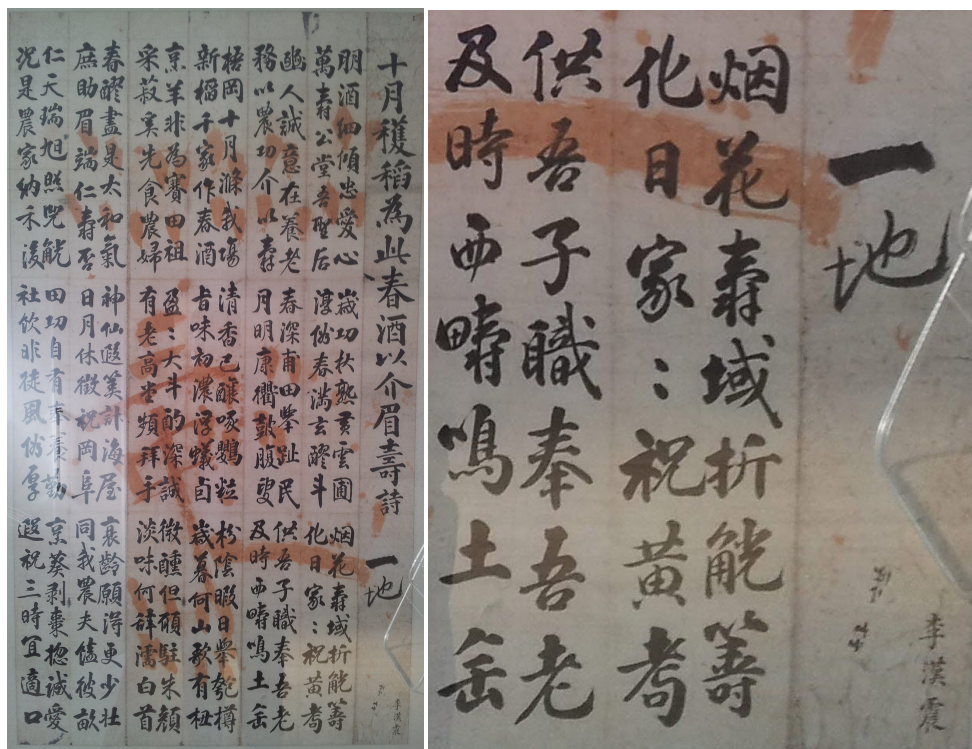
小栢 安達三이나 海隱 金義正, 二樂 李啓徵, 石湖 高永昕등이 그의 문하

생이다.

그 중 安達三은 道學에 뛰어났고 金義正은 詩學으로 南州의 일인자로 꼽을 정도이다. 안달삼과 김희정은 면암 최익현이 유배 왔을 때 서로 교유하였는데 김희정은 면암의 문인이 된다. 안달삼은 浮海 安秉宅의 부친으로 호남의 名儒 奇正鎭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귀향하여 1883년 제주출신 判官 高景駿이 시험관이 되어 치루는 陞補初試에 합격한다. 북학을 배웠고 경학과 경술에도 능한 그는 탐라의 선비로 품행과 道誼를 조정에 천거하려 하였으나 거로에 사는 玄商休가 반대하자 온가족을 데리고 광주로 가버렸다.

후일 金錫翼은 『破閑錄』에서 “스스로 과학에 몰두하고 스승을 따라 북학을 배워 후진을 양성한 공이 큰데 제주가 小栢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라고 했다.

이후 안병택은 奇正鎭의 손자 奇字萬의 문하생이 되어 한학의 깊은 경지를 터득하고 제주의 金錫翼, 부백심, 金勻培, 양찬휴, 현상희, 양성하 등



(圖 28) 梅溪 李漢震 科學試驗紙

을 훈학한다.

梅溪의 과거시험지(圖 28)는 鄉試에 합격하였을 때의 것으로 보이며 이 科紙는 상주에 있는 이정웅씨가 소장하고 있다.

서체를 보면 추사풍의 글씨로 同學인 姜琦奭의 서체와 흡사했음을 알 수 있다.

IV 濟州 書藝 形成의 內在的 要因

1. 留學派의 서예

1) 高麗 後期の 高適

高適은 휘가 迪(적)이고 호는 谿林이다. 고려시대 中書侍郎·平章事 高兆基의 손자이다. 고려 元宗2년(1261년) 과거에 급제한 후 삼별초가 제주로 들어오자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러 제주로 들어왔다. 그는 토벌의 功으로 탐라성주가 되어 留摠管에 임명되어 제주를 안무한다. 高適은 원래 제주 고씨로 성주 高末老의 4대 손(高自堅-高末路-高維-高兆基-高廷益-高適-高貞幹-高仁旦-高順元-高臣傑-高鳳禮) 豪族 집안이다. 고려는 1295년 탐라를 제주로 개칭하고 중앙의 통치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위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호족의 자제들을 서울로 데려다 인질로 삼았는데³⁸⁾ 고적도 이때 서울로 간 것으로 보인다.

高適은 글씨를 잘 써서 “高適은 문장이 능하고 필법이 또한 기이하다”³⁹⁾고 王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는 고려의 서예 復興期の 三大旗手라 불리는 文豪 李奎報, 執權者 崔怡, 翰林學士兵部尙書 金印孝 등 三巨頭가 당대의 명필이었으며 시대적으로 볼 때 당시의 유행체인 八萬大藏經의 글씨체가 모두 歐陽詢體와 宋代의 寫經風이었으므로 고적도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38) 高在珽, 앞의 책, p.260.

39) 金基昇, 앞의 책, p.326.

2) 朝鮮 初期의 高得宗

高得宗(1388~1452)은 고려 禔王14년에 교래리에서 출생하였고 자가 子傳, 호가 靈谷이다. 고득중은 1413년에 효행이 두터워서 부친의 상을 당하자 廬幕에서 3년을 지내 旌閭되었고 1414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修文殿 提學에서 漢城府判尹(서울시장)까지 올랐다. 京司子弟職料의 설치에 공이 벼슬 시 고향 자제들이 많이 찾아오는 까닭에 그의 俸祿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고 조정에서 司勇祿 12人分을 주어 보살피게 하였는데 서울로 移居후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조정에서 철회하지 않아 제주에서 서울로 유학 오는 유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條例 10箇條”를 만들어 제주의 학문을 부흥시키려 노력하였고 “條例 10箇條”를 짓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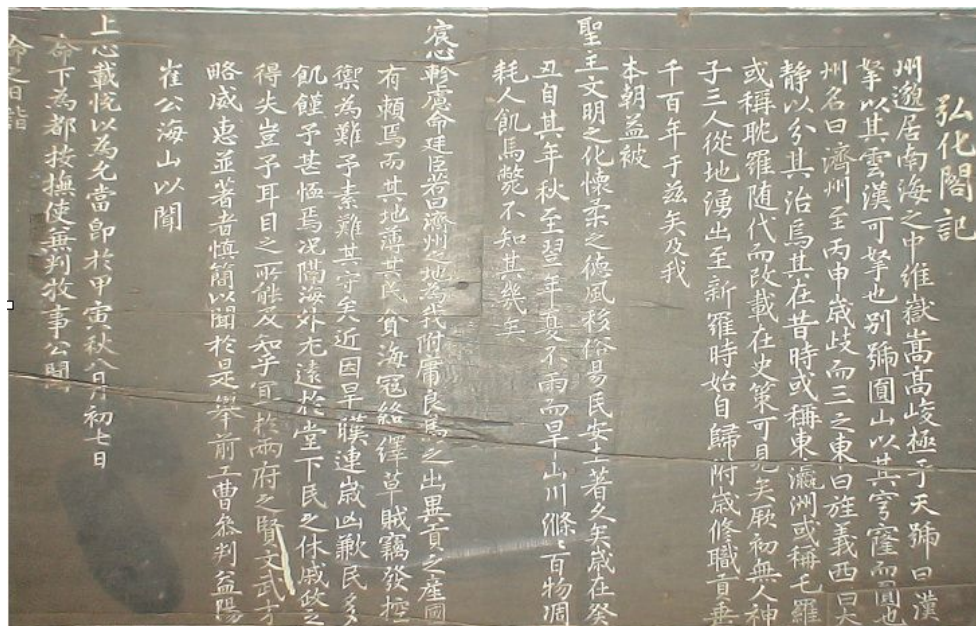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문명과 예의는 중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관계로 一事一物의 작은 문제도 능히 自主하지 못하고 按撫使의 명령을 聽從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까 벌벌 떠는 현상이다..... 따라서 풍속을 고쳐서 보다 아름답게 하고 기강을 세워서 보다 튼튼하게 하여 백성이 편안하게 되고 법이 바르게 됨은 곧 나의 책임이라 본다.....” 라 하고 十箇條의 첫머리에 스승에게 하여야 할 도리와 師弟之間에 조심하고 경건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공부를 잘 했을 경우의 賞과 罰을 주는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의관을 바르게 하는 법과 예절, 變禮 등 禮樂文物과 公衆道德의 향상을 十箇條에 포함 시켰다’ 하였다.⁴⁰⁾

고득중의 이러한 교육적 사상과 인격에 감화 받은 土官子弟들은 교육에 대한 태도는 眞摯하였고 이들을 통한 우매한 도민의 敎育 勸獎은 近世社會形成에 큰 역할을 하였다.

40) 제주도교육위원회, 앞의 책, 1979. p.6

고득중은 문장이 능하고 서법이 겸비하여 유명한 書畵가 많다고 하나 현재 삼성사에 보관되어 있는 <弘化閣> (圖 50)현판과 <弘化閣記> (圖 30)가 있고 安平大君의 夢遊桃源圖 讚揚 7언 長篇詩가 있다.

홍화각은 제주목관아지 내에 위치한 절제사의 집무처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세종 16년(1434년) 공조참판 崔海山(1380~1443)이 都按撫使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화재로 모든 문서와 역사적 자료까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 제주목관아가 모두 불탄 뒤 1435년(세종17)에는 제주도에 풍년이 들어 백성이 즐거워하자, 못쓰게 된 사찰의 재목과 기와 등을 가져다가 節度私營을 지어 萬景樓란 이름을 弘化閣이라 고쳐 썼다. 弘化閣記는 홍화각을 짓기까지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高得宗으로 하여금 쓰게 한 글인데, 여기에는 제주도의 지형과 역사는 물론 崔海山의 인품과 백성들에게 베푼 선정 및 홍화각의 건립 내력과 홍화각이라 이름 붙인 이유 등이 상세히



(圖 30) <弘化閣記>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제주도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산은 천상의 雲漢에 닿은 듯 하므로
漢拏山이라 하였고 탐라의 이름이 東瀛州 또는 毛羅라 했으며 神子
삼형제가 地中으로 나와서 살기 시작했다’.....

오는 후세를 위하여 나는 의리상 사양할 수 없어 잘하지 못하나 꺼리
지 않고 이 글을 쓴다.

세종19년 丁巳(1437년) 孟春 既望(16일) 前 禮曹參議 高得宗 記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건물은 모두 합쳐 2백여 칸으로 조선시대 제주
도의 역사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1438년(세종20) 戶曹參議 재임 중 種馬進貢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
녀왔고 1439년에는 통신사로 日本王의 書契를 가지고 돌아온다. 1448년(세
종 30년)에는 제주에 안무사로 온 辛淑晴이 〈觀德亭〉을 건립하고 안평대
군이 쓴 觀德亭 현판이 게양되자 고득중은 집현전의 辛碩祖에게 「觀德亭
記」를 지어주도록 간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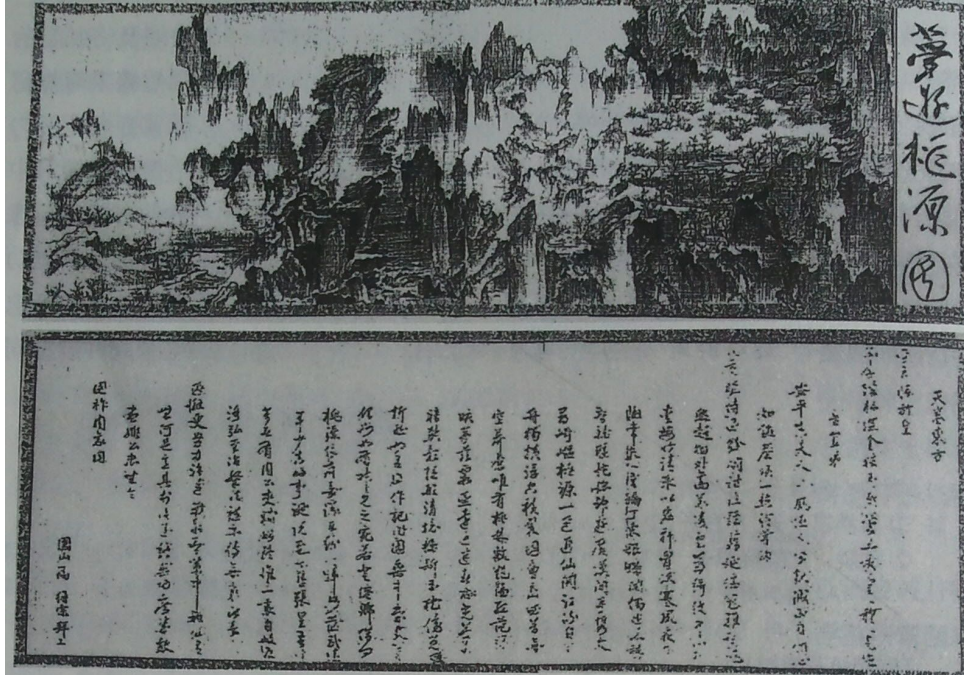
고득중이 이러한 역할은 평소에 세종대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충신으
로 본도의 교육상 모든 문제를 쉽게 윤택 받을 수 있음으로서 이루어졌다.
특히 홍화각기는 제주 유생들에게 있어 송설체의 기본 법첩 역할을 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면에서 홍화각기는 귀중한 자료로 제주의 서예사
적 측면에서 높이 여기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官體인 송설체는 고려 후기(1324년경) 李齊賢에 의해 들어와서
안평대군에 의하여 크게 유행한 서체이나 고득중은 안평대군보다 30살이
나 연상이어서 일찍이 송설체를 체득하였고 안평대군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留學의 근거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靈谷公 實錄⁴¹⁾에 보면 고득중은 소년시절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님이 보고
싶어 제주로 오던 중 태풍을 만나 배 옆구리가 부서지고 龍骨도 없어져 죽을 지
경에 이르렀는데 나무판자 위에 같이 의지 하고 있던 그의 종이 “ 이 판자위에서

41) 高孟善, 『高氏靈谷公派宗親要覽』, 起鍾族譜社, 1995.12. p.146.

는 어차피 버틸 수 없어 두 사람 중 한사람은 죽어야하니 도련님께서는 무사히 귀향 하십시오” 하고 물속으로 빠졌다. 이후 고득중도 살고 그의 증은 삼일만에 파도에 밀려 떠올라 구출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圖 31) 〈夢遊桃源圖 讚揚詩〉

고득중의 또 다른 친필인 〈夢遊桃源圖讚揚七言長篇詩〉(圖 31)는 일본의 天理大學校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글씨는 예스럽고 아담하다”한다⁴²⁾. 지금의 그림은 일본에서 찍어온 것으로 글자가 선명치 못하여 분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형태적인 감상으로 족하다.

3) 朝鮮 末期 留學派

(1) 金錫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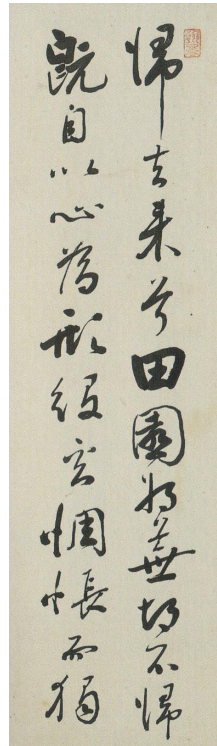
金錫翼(1885~1956)은 호가 心齋·一笑道人·海上先史라고 했다. 제주시

42) 제주시, [디지털제주문화대전], www.jeju.grandcultur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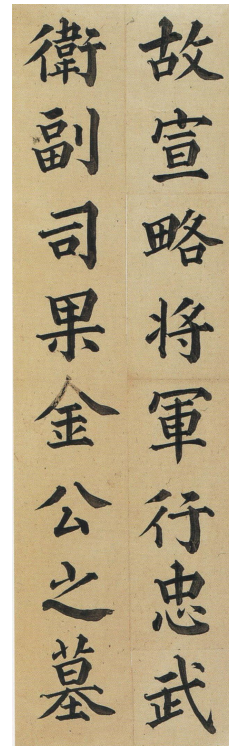
동광양 태생으로 義兵參謀 金錫允의 아우이다. 보성전문(고려대)을 나왔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한학자이고 향토 사학자이며 서당훈장이고 서예가이다

1900년 16세 때 我石 李容鎬에게서 한문을 배웠는데 我石은 충북 보은으로 1896년 제주로 유배 와서 1901년 6월 全南 신지도로 이배되었다. 이후 전남 광주의 瑞石洞에 사는 浮海 安秉宅⁴³⁾(1861~1936)선생의 문하생이 되어 학문과 서예를 배우고 嶺湖南에서 문장의 제1인자가 되었다. 이 무렵 義兵長 松沙 奇宇萬의 寒泉精舍로 찾

아가 衛正斥邪 정신을 받았으며 을사



(圖33)歸去來辭



(圖32)金致鎔碑

년 한일조약으로 나라가 기울자 민족혼을 진작할 耽羅紀年을 저술하게 된다. 心齋의 서예는 일본 거주 기간(1923~1943)동안에 더욱 발전하였다⁴⁴⁾ 유품인 작품과 법첩을 보면 해서체(心齋의 9代祖, 金致鎔의 비문⁴⁵⁾)(圖 32)는 안진경의 다보탑 비를 통달했고 행서는 唐, 宋, 淸의 서체를 두루 섭렵한 것으로 보인다. 행서체의 귀거래사(圖 33)는 整齊되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며 요소요소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구사하여 아름다운 필법의 미학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전각에도 조예가 깊어 自用印을 직접 각하였으며 이들 인영을 모아 놓은 심재 인보가 전한다.⁴⁶⁾

浮海 安秉宅은 원래 제주인으로 부친 安達三(1837~1886)을 따라 광주로

43)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305.

44) 國立濟州博物館, 『舊韓末知識人の一生』, 中央文化印刷, 2004. p.47.

45) 金致鎔:1647~1701.조선후기문신, 1672년 9현종13)병과급제, 子는金繼興.

46) 오장순, 『제주문화예술 60년사』, p.265.

移居하였는데 義兵長 松沙 奇宇萬에게 사사받는다. 浮海는 光州에서 제주에서 유학 온 謹齋 金勻培(1888~1982 七星路 수생당한약방)와 金錫翼, 부백심, 양찬휴, 현상희, 梁聖廈등을 지도하여 光州學派로 불린다.

(2) 康用範

康用範(1891~1953)의 호는 수암, 또는 小石이라고도 하는데 부친이 康巨石으로 본관이 信川이다. 神德王后의 오빠 康永의 후손으로 고향이 서귀포 법환동이고 한학을 했다. 1908년 9살 때 아우 康九範과 함께 전북 전주에 있는 界火島로 가서 艮齋 田愚⁴⁷⁾에게서 2년간 학문과 필법을 사사 받았는데, 그의 예서체(圖 34)는 특이하다. 평생 학문과 서예를 좋아하여 필방택호를 務本齋라 불렀다. 康用範이 타계 후 寄堂 康九範이 형의 작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저명한 서예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修庵의 작품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서체로 대단한 명필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서귀포 寄堂



(圖 34 康用範의 筆跡

미술관은 일본에서 갑부가 된 동생 康九範이가 지어준 것으로 강용범의 작품과 사촌간인 邊時志 선생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그림의 비는 한라산 사려니 숲길 입구에 있다.

(3) 玄中和

素菴(1907~1997)은 제주농업학교 시절 海岡 金圭鎭에게서 九成宮醴泉銘과 佛經 중심의 글씨와 문장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桃山中

47)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1948.



(圖 35) 醉是僊 1976

학 시절 습자 공부를 마치고 마즈모토(松本芳翠)(3년)와 스시모토(辻本史
 邑)(8년)에게서 해서, 행초는 물론 篆隸와 六朝楷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체
 를 습득하여, 귀국 후 독특한 素菴體를 구사하며 제주 서예의 독보적 존재
 가 된다. 특히 素菴은 강건한 六朝楷의 劃質을 바탕으로 전예의 필법을 가
 미시키면서 해서와 행초서를 쓰는 것이 독특하다할 수 있다. 술을 좋아하
 였고 취중의 초서체(圖 35)는 선녀가 하늘을 나는 듯하다. 예술과 함께 생
 활하고 문방사우와 함께 살아온 素菴선생은 제주에서 교편을 잡으며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제자 중 어느 분은 德으로써 글씨를 가르친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한다. “劃만 보지 말고 餘白도 보
 아야합니다. 道를 닦는 마음으로 꾸준히 글씨를 써야 합니다.”⁴⁸⁾

2. 濟州의 自生 書藝

1) 朝鮮中期의 金良弼

김양필⁴⁹⁾은 자는 夢得이고 경주김씨 익화공파 이다. 부친은 전행용한위

48) 이안희, 『素菴玄中和先生の 삶과 藝術』, 비엠비, 2007. p.124.

부사과 金秀麗이다. 생물 미상이나 대략 148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이 된다. 1510년(中宗5년)에 式年試 생원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향교 교수에 이르렀으며 1520년(中宗15년) 己卯土禍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 온 沖菴 金淨(1486~1521)에게서 사사 받았다. 1534년(중종29) 제주목사 沈連源이 鄉學堂을 세우고 명륜당을 보수할 때 그가 지도하여 완성하였다.

“제주의 유학자로 문장과 서예에 능하고 세인들로부터 문학이 뛰어나고 지덕을 겸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한다. 白鹿洞規를 써서 후진양성을 권장하고 명륜당 현판에 읊시 한수가 전해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誰憂斯學向頽傾, 致使黌堂得再成,
蜀郡幸沾文字化, 袁州欣見祖君營,
一源道理堪憑討, 萬古彝倫可繼明,
莫謂海邦偏且遠, 山應聲譽遠天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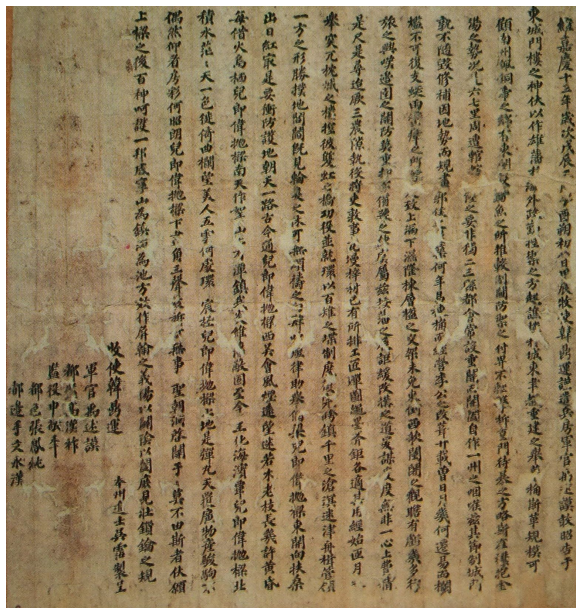
누가 유학이 퇴폐하고 기울어감을 근심 할까
목사가 향교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으니
변방에는 다행스럽게 문자가 교화되어
袁州에서 혼연히 祖君이 일 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근원의 도리를 자못 의지하여 토론 할 만하나
만고의 몇몇한 도리 밝게 이어질 수 있겠네
제주도를 치우치거나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마오.
명성과 칭송이 멀리 임금에게 까지 전해지리니.”

이 시가 현판에 새겨진 건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마도 건물 화재 시 불타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명륜당 제액도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행방불명이라 한다. 金良弼이 무슨 체를 썼는지는 모르나 김정에게 사사 받았으므로 왕희지풍의 서체를 썼을 것으로 본다. 金錫翼은 제주의 글씨는 高得宗을 으뜸으로 그 다음이 金良弼, 다음으로 吳靄·金龍徵을 꼽았다.

49) 韓致文, 『耽羅實錄』, 韓進文化社, 1973. p.89.

2) 朝鮮後期の 吳霑

吳霑⁵⁰⁾은 1764년(英祖40)~1856년(哲宗7) 和順사람으로 자가 時之이고 조선 후기 서예가이다. 號가 靑坡 자는 時之이고 제주시이며 부친은 吳載權이다. 1786년 式年試 生員 三等 三位로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는 출사하지 않았다. 吳霑은 松雪體(圖 36)를 매우 重視하였으며 문장이 뛰어나 公私文을 많이 썼다. 濟州筆苑에 올라 있으며 제주 서예가의 명필 대열 3위에 오른다. 金石書에도 정통하였으며 명륜당의 移建 上량문이 제주향교 명륜당 안에 남아 있다. 吳霑의 학문과 서예는 둘째 아들로 전해지는데 아들 吳泰稷도 식년시 진사에 합격하고 司馬試에도 합격하였다. 作詩에 拔群의 재주가 있어 서울에서 유학하였다. 제주목사 凝窩 李源祚와 화답한 詩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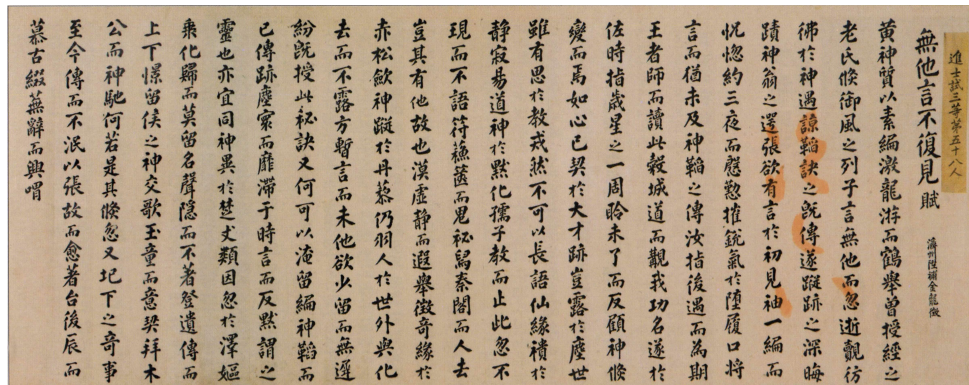
(圖 36) 吳霑의 筆跡

3) 朝鮮末期의 金龍徵

金龍徵(1809~1890)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고 교육자이다. 호는 靜軒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애월읍 남읍리 출신으로 부친은 高鳳喆이다. 1838년(헌

50) 吳文福, 『瀛州風雅』, 濟州文化社, 2004. p.457.

중4) 제주에서 열린 陞補試에 합격하고 1843년(헌종9) 식년 진사시(圖 37)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가 되었는데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의 교



(圖 37) 金龍微의 科學試驗紙

수직을 맡았으며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1854년에는 睦仁培 제주목사가 향교에 啓聖祠를 짓자 그 題額(圖 38)을 썼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학식이 풍부하고 글씨를 잘 써서 士林의 영수라는



(圖 38) 金龍微의 秋史風 書體

칭호를 들었으며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1873년 최익현이 유배되자 그 와도 교유를 했던 기록이 勉庵集에 전해진다. 향교의 계성사 현판은 두 개가 매달려 있는데 밖의 검은 바탕의 것은 靜軒 金龍微 글씨이고 안의 하얀 바탕의 啓聖祠(圖 39)는 石農 李鍾愚의 글씨이다.

石農 李鍾愚는 (1801~?)조선 후기의 文臣이고 서화가이다. 1853년에 벼슬이 副司果 禮房承旨였고 1856년 강원도 관찰사였는데 어떻게 하여 제주향교의 계성사 제액을 공이 썼는지 모른다.



(圖 39) 李鍾愚의 〈啓聖祠〉

그의 글씨는 독특한 필체로 세칭 石農體라 하는데 그의 행초서는 申緯와 김정희의 필법이 어우러진 서풍으로 필력이 있으며 짜임새도 뛰어나다.⁵¹⁾

4) 朝鮮末期의 洪鍾時

洪鍾時는 (1857~1936) 본은 南陽이고 호는 研農·桃下樵人·老研·研翁 등을 사용했다. 서예가이자 官僚 및 제주향교 都訓長을 지냈고 1931년 濟州面이 邑으로 승격될 때 초대 읍장을 지냈다. 필원에 오른 洪範孝의 종손이다. 1870년(고종27) 洪鍾呂, 金昕平, 高台炯, 金膺斌등과 三邑의 弊政과 庶政개혁안을 마련 조정에 제출하였다. 研農은 1879년 제주에 유배 온 외



(圖 40) 乾始門

부대신 雲養 金允植⁵²⁾이 조직한 詩會〈橘園〉의 동인이 되어 회원으로 활

51) 金基昇, 앞의책, p.777.

52) 金益洙 譯, 『續陰晴史』, 耕信印刷社, 2010. p.12.

동하며 국내의 유명인들과 교유했다.

『研農先生遺墨』⁵³⁾에 의하면 研農은 “禮儀 恭謹鄭重하고 親和溫厚하며 賢德之巨儒라 稱할 정도로 도민들이 推重하여 모두가 존경하였고 無不博通하고 尙古翰墨을 즐겨 諸 大家의 筆法論을 涉獵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秋史필법을 自得益深하여 世評에 秋史淵源書法入神이라 稱하더라” 하였다. 秋史先生遺墟碑(圖 42)는 현재 秋史謫居址에 있는 비로 洪宗시가 쓴 예서체이고 (圖 41)은 綺麗라는 司空圖의 詩 일부

이다. 작품에 79세라 쓴 것으로 보아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마지막 작품으로 보인다. 삼성혈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乾始門(圖 40)도 연농의 筆跡이다.

저서로는 『阮堂先生書法總論』 『古文眞寶鈔』 『研農水墨』 『賀璋瓊韻帖』 『구서법과비』 『미수선생전동해비』 등이 있다.

5) 朝鮮 末期의 張聖欽

張聖欽(1867~1955)은 호가 壹軒이고 애월읍 광지리이다. 향리에서 기초한문을 배우고 경북 선산의 대학자인 許薰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고 1874년 향시에 수석 합격하여 고종 말기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추사체를



(圖 42)秋史遺墟碑 (圖 41)綺麗

53) 洪性欽, 『研農先生遺墨』, 耕信印刷社, 1989. p.14.

잘 써서 도내의 비문은 그의 글씨가 많은데 애월읍 남읍리 소재 〈耽羅王子后文公之墓〉(圖 46)은 특히 유명하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는 집안 울타리에 무궁화를 심을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 氣概가 있었다.

이 비는 光武 后 丙子 春 朝正 李膺鎬 撰으로 기록되어 있다.

李膺鎬는 광해군 때 제주도로 유배온 艮翁 李瀾의 6대손이다. 호가 震齋 또는 觀海이고 연미 마을의 橘巖 李基璫의 아들로 호남의 松沙 奇字萬에게 사사 받은 애국자이고 鄉土史學者이다.



(圖45)雅號印 (圖43)武夷九曲

한일 협약에 반대하는 12동지가 朝雪臺에 모여 집의계 선언문을 낭독하며 국권회복을 다짐하였다.

壹軒의 〈武夷九曲〉(圖43)병풍의 서체를 보면 왕희지의 서풍에 추사의 힘찬 획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며 〈眞力彌滿萬象在旁〉와 雅號印(圖45)에서는 동기창의 서풍에 추사풍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圖46)耽羅王子碑

6) 强占期の 高順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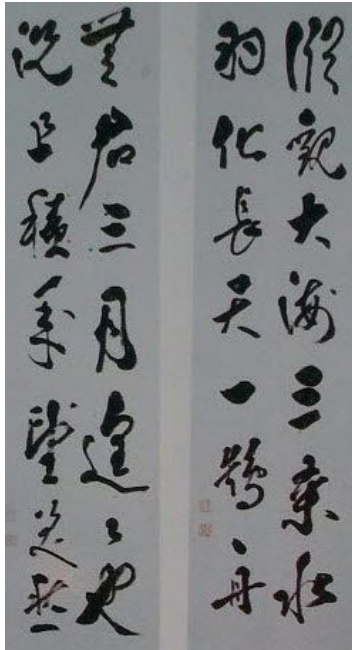
고순흙(1893~1977)은 조천리 출신으로 호가 竹巖이다. 그의 부친은 太學館 교수를 한 菱峰 高性謙이다. 吾羅里의 七峰書堂에서 훈학하던 중 화제로 문하생을 구하려다 순직하였다. 고순흙은 홀어머니 송씨의 정성으로 사립 義信學校를 거쳐 1912년 제주 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 京城 專修學校(서울법대전신)를 졸업하면서 大東靑年黨에 가입 항일운동을 하는데 上海 臨政으로부터 포고문과 격문을 전달받아 국내에 배포 했다. 牧牛 金文準과는 동기생이나, 松山 金明植과 梅園 洪斗杓와는 松竹梅의 혈맹을 결의하고 국권 회복을 다짐했다. 김명식 또한 명문 집안으로 그의 조부 金膺銓은 군수 종조부 金膺斌은 제주판관을 역임하였고, 제주에 유배된 정치가·문인들과 제주지역 유림들이 조직한 淸園詩會(淸園詩會)의 주요인물로 김윤식과 박영효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분들이다.

竹巖의 항일운동사는 〈愛國志士 竹巖 高順欽의 生涯〉에 잘 나타난다. 죽암의 사상은 穩健論的 無政府主義로 음모나 테러, 總罷業 등의 過激的 방법이 아닌, 즉 선전과 계몽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온건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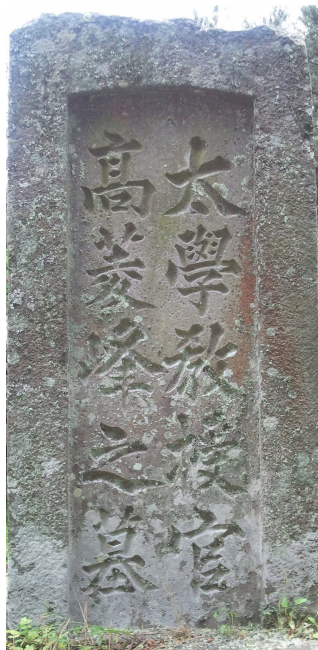
죽암은 對 일본 조선인의 권익과 조선인 여공 보호연맹의 결성 등 노동운동과 사상계몽에 앞장서 왔고 일본기선의 횡포에 대항하여 1928년 濟州 航海組合 汽船部를 설립하여, 제주 오사카간에 順吉丸을 취항시키기도 하였다. 竹巖은 1937년 3월 일본에서 朝鮮書道研究會를 만들어 秋史體와 蒼巖體(圖 47)를 보급하는 등 민족혼의 주입에 힘썼으며 항일 인사의 비문은 모두 그가 썼다.

조국이 해방되어 이념이 양극화되기 이전 1946년 在日本朝鮮人聯盟 대표자로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1963년 영주 귀국하여 서예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국립묘지 순국선열 묘역에 묻혔으며 죽암의 비문은 그의 문하생 金順謙이가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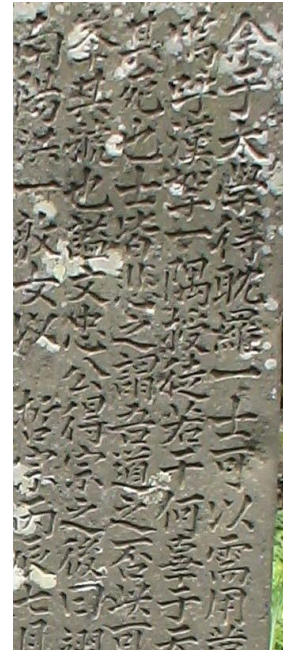
(圖 48, 49)는 고순흙 부친의 비이며 모두 高順欽이 쓴 것이다. 죽암의 일본에서 추사체와 창암체를 보급한 것으로 보면 두체 모두를 涉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圖 47)高順欽 書跡



(圖48)高性謙碑前面



(圖49)高性謙碑後面

V. 濟州 書藝의 時代的 書體 分析

1. 高得宗의 松雪體와 安平大君의 書風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書跡은 高得宗의 〈弘化閣〉(圖 50)과 〈弘化閣記〉(圖 51)이다. 이 扁額은 지금 三姓財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現存하는 국내 懸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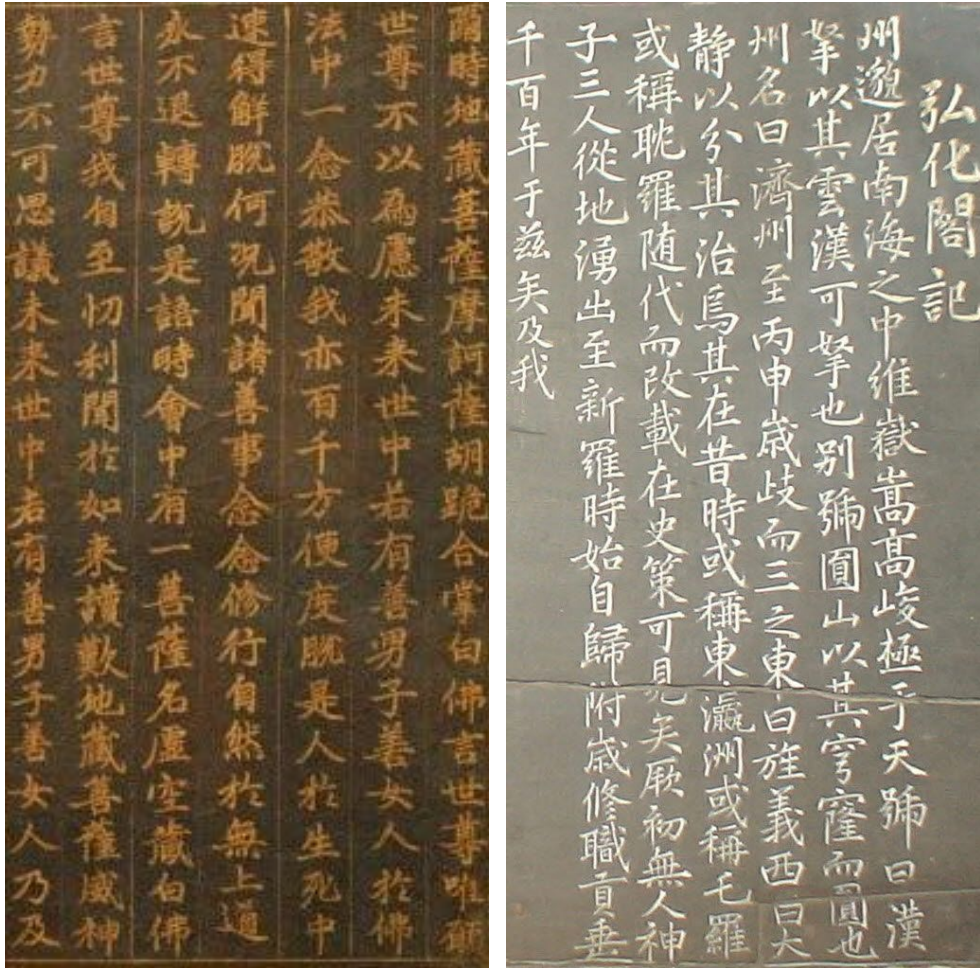


(圖 50) 〈弘化閣〉(1435)

홍화각 편액을 소장하고 있는 삼성사재단으로부터 문화재 지정요청이 있어 濟州道에서는 문화재 지정 검토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產學協力團附設木材年輪素材銀行에 수종분석과 연륜 연대,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 홍화각 편액의 본판은 비자나무이며, 뒷면 세로 목은 뽕나무 속으로 밝혀졌고, 연륜 연대는 A. D. 1288~1324년(95.4% 신뢰구간)으로 나타났다. 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가공 당시 제거된 나이테를 80개로 가정하면 1435년 홍화각 初創 당시의 편액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사를 실시한 충북대학교 박원규(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목재연륜소재은행장)에 따르면 연륜 연대로 측정된 것 중에는 15세기말(A.D. 1474)의 승례문 현판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홍화각 편액은 이보다 30년

정도 앞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⁵⁴⁾.

홍화각기(圖 51)의 서체를 보면 대부분의 자형은 정방형이지만 획과 획



(圖 52) 〈地藏菩薩摩訶〉

(圖 51) 〈弘化閣記〉

이 참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조화미, 균형미, 정형미가 뛰어나고 세련되어 정교한 면을 볼 수가 있다. 세로의 줄을 보면 균형미가 뛰어나고 행과 행 사이에도 자로 잰 듯한 정교함이 나타나며, 선 획이 힘차고 장중한 느낌이 넘친다. 이와 같이 고득종의 해서를 보면 고려말기에 송설체가 유입되어 조선 초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것으로 본다.

54) 강재병, 〈弘化閣懸板炭素年代測定〉. 濟州日報. 2011.08.19.

安平大君(1418-1453)은 世宗의 第三 王子이다. 癸酉靖難으로 36세에 생을 마쳤지만 그가 書藝界에 이룬 업적은 실로 크다.

송설체가 유입된 것은 고려시대 李齊賢이 1314년에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연경의 萬卷堂에서 근무하며 조맹부와 교유를 하면서 부터이다. 중국에서조차 시들어가던 송설체가 안평대군에 의하여 奇蹟的인 발전을 한 것은 獨創的 서법으로 韓國化시켰고, 정계의 일파로 他 書派에 대한 영향 등이 송설체를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안평대군의 작품 〈地藏菩薩摩訶〉(圖 52)를 보면 안평대군이 쓴 글자들도 대부분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글자의 획은 부드러운듯하면서도 경쾌하고 굳센 느낌을 준다. 변과 변, 부수와 부수의 결합이 조화로운 것은 고득종의 글씨와 다른 곳이 없다. 안평대군의 無자와 고득종의 無자의 형태는 획의 방향이나 점획의 처리가 너무 유사하여 당시의 서체는 송설체가 주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송설체는 조맹부가 晉, 唐 이전으로의 복고를 주장하여 왕희지의 바탕 위에 굳센 필법과 정밀한 결구를 가미하여 힘차고 유려한 필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해서, 행서는 물론 당시에는 잘 쓰이지 않던 초서, 전서, 예서 까지도 연구하여 중국은 한림 원체라 하여 판본에도 널리 사용되었고 청나라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송설체는 안평대군 이후 조선 중기까지 200여 년 동안 官體로 쓰이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고득종과 안평대군의 작품을 보면, 고득종의 서법과 안평체가 똑 같은 서풍을 유지 하고 있다. 박팽년은 安平體를 보고 “꽃 같은 아름다운 글자, 자태는 무궁하고, 햇살 같은 신체, 기이함도 가지가지(美質插花無盡態/神光射日更多奇)”라고 평했다.

2 吳靄의 韓石峯 書風

〈嘉善大夫行縣監洪三弼墓碑〉(圖 53)는 조천읍 선흘리 소재 알바메 오름에 있는 오점이 쓴 비문이다. 글씨는 해서체로 너무나 정교하게 쓰여 있다. 해서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필체로 줄과 행간도 일정하다. 전체적인 한 자 한 자의 結構나 장법⁵⁵⁾의 調和는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 있다. 획 처리가 분명하고 세련되어 있다. 또한 자간이 조밀하고 크기가 일정하며 축선의 구조가 견고하고 매우 안정적이다. 비문의 경우는 글자의 크기에 따른 포치도 중요하지만 균제적인 결구도 중요하다 하겠다.



(圖 53) 縣監洪三弼墓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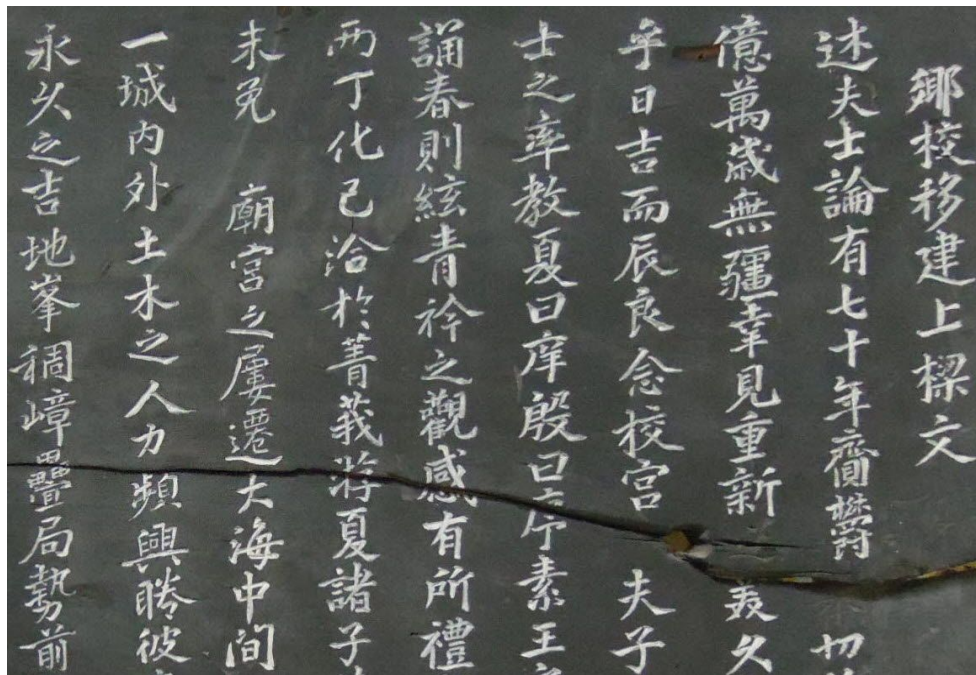
오점의 〈鄉校移建上樑文〉(圖 54)은 가로 줄을 맞추지 않고 자형의 크기대로 썼다. 따라서 오점은 글자의 자형에 따라 획이 많은 글자는 크게, 획이 적은 글자는 적게 쓰는 등 자유분방하고 호방한 서풍을 즐겨 썼던 것으로 보인다. 결구의 기울기는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올라가게 한 것이 전

55) 宣柱善, 『書藝通論』 圓光大學校出版部, 1998. p.96.

‘章法이란 글자와 글자, 행과 행, 글자와 행이 서로 呼應하는 관계를 말한다. 결구와 장법을 통틀어 分間布白, 分行布白, 布置등으로 표현한다. 장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줄과 세로줄을 모두 맞추지 않는 장법, 세로줄은 맞추고 가로줄을 맞추지 않는 장법, 그리고 가로줄과 세로줄을 모두 맞추는 장법, 字間에 비해 行間이 넓은 장법, 자간에 비해 行間이 좁은 장법, 자간과 行間이 비슷한 장법, 자간과 行間을 무시한 장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체적인 균형미를 갖춰 조화로운 장법을 구사하고 있다. 線質과 肥瘦도 동적인 변화감을 주고 있다.

한석봉은 국가의 주요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아 중국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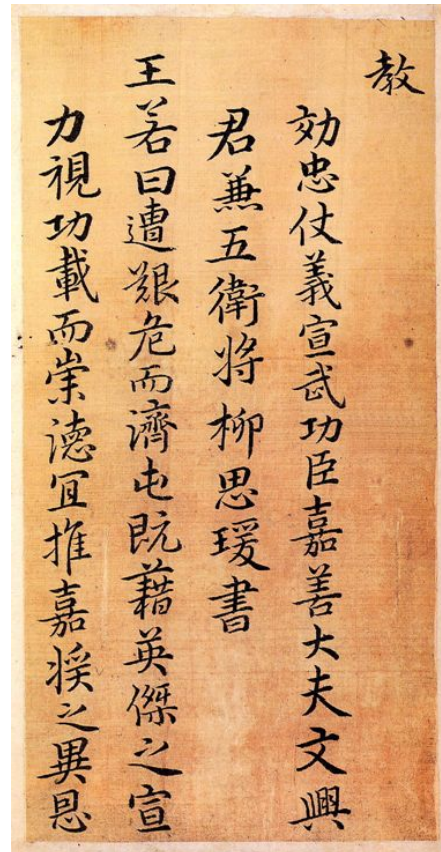
(圖 54) 〈鄉校移建上樑文〉

이름이 알려져 동방 최고의 명필이라는 稱頌을 들었다. 당대 명나라 최고의 문인인 王世貞은 한석봉의 글씨를 “성난 사자가 바위를 갉아내고 목마른 천리마가 냇가로 달리는 것 같이 힘차다”라고 평가하였다. 심지어는 명나라에서는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석봉체로 써서 보내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한석봉의 글씨 〈教旨〉(圖 55)는 土俗的인 느낌이 있고,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위에서 보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것 같아 一貫性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글 자체가 자유분방하며 부드러우면서 平凡해 보이기까지 한다. 行과 行 사이에는 넉넉한 여분이 있는 듯 보이며 시원시원하게 글을 표현하였다. 柔軟性이 뛰어나며, 글자들

이 소박한 면이 나타나 보인다. 세로줄과 가로줄이 자연스럽게 처리하였다.

한석봉의 서체와 오점의 서체와의 조형미 분석은 조선 중기 석봉은 왕희지의 고법을 배워 석봉체를 완성하였고 李澈는 윤순에 의해 동국진체를 완성하는데, 제주에서는 李澈의 형인 李瀾이 1618년 유배 와서 金晉鎔이라는 대학자를 배출시킨다. 글씨란 가풍이고 유전이 됨으로 형인 이익도 李澈 風인 글씨를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 동국진체의 서풍이 이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그러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서체미를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점이 향교 교수를 지내면서 송설체를 중시하였다고 하였고 그의 영향은 향교의 서예교육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圖 55) 〈教旨〉

3. 洪鍾時의 秋史 書風

洪鍾時(1857~1936)는 제주성안에서 筆苑에 오른 洪範孝의 증손이다. 硯農은 추사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朴季詹이가 만든 印譜를 가지고 秋史體를 공부하였다고 한다.⁵⁶⁾

1905년에는 제주향교 도훈장을 맡았었고 1917년 제주금융조합장, 3·11운동 직후는 제주면장을 거쳐, 1931년 濟州面이 濟州邑으로 승격되자 초대

56) 金榮治, 『20世紀 濟州人名事典』, 주원사, 2000.3. p.431.



(圖56) 〈明月臺〉

제주읍장(제주도지사)을 지내다 3년 만에 사임하였다.

研農은 米山 許潔과도 공동 작업을 했다. 米山이 산수를 그리고 연농이 그 題跋을 썼다. 米山은 篆刻에도 뛰어나 고금의 전각들을 翫刻하여 자신의 기량을 쌓았고 蘭 그리기를 좋아하여 여러 개의 墨蘭 병풍을 남겼다.

金錫翼은 研農을 “우리 고향 제주도민들이 길이 공경하여 그의 높은 덕을 흠모하는 명망가일 뿐만 아니라 文氣가 뛰어난 文士로서 서법의 원리에 정통하여 필묵이 정교하면서도 오묘하다. 화려하고 우아한 글씨를 구사하는 대가이며,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어 書畫와 金石文을 바르게 鑑識할 수 있는 名門의 一家를 이루었다. 팔십에 이르러서도 용모는 젊고 風采는 황홀하여 신선과 같아 못사람들과 달랐다. 타고난 聖人의 氣骨은 뉘라서 이를 가리랴”라고 하였다. 崔永年은 “연농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영주의 신선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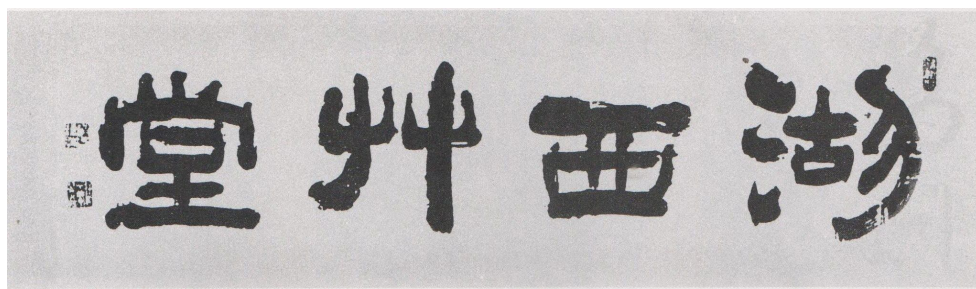
특히 운양 김윤식과의 만남은 교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연농의 교유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세간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제주를 찾은 유명 문사들은 제주에 오면 연농을 만나 교유하는 것을 즐거운 낙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연농과 교유한 문사들은 한국예술사에 이름을 남긴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夢人 丁學敎, 石村 尹用求(1853~1939), 石雲 朴箕陽(1856~1932), 米山 許潔(1862~1938), 葦滄 吳世昌(1864~1953), 毅齋 許百鍊(1891~1977) 등이 있다.

명월대⁵⁷⁾는 조선말에 건립되었으며, 이 지방 유림들이나 시인 묵객들이

57) 濟州道 記念物 제7호

어울려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명월대가 있는 川邊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백 년 묵은 팽나무 60여 그루가 밀생하고 있어 자연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간간이 흐르는 물소리가 정결하다. 명월대는 마을을 끼고 있는 천변 중앙에 사각형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팔각형의 단을 1층 쌓았으며, 다시 원형의 반석을 만들었는데 요즘 들어 바닥을 콘크리트로 처리하였으며, 1998년 1월에 보수공사를 하여 단단히 하였다. 축대 동쪽에 〈明月臺〉(圖 56)라는 현무암 석비가 세워졌다. 비의 규격은 높이 75cm, 너비 12cm이다. 뒷면에는 ‘昭和六年五月五日 明月里青年會’⁵⁸⁾라고 새겨져 있고, 앞면에는 ‘研農’이라고 하여 서예로 유명한 홍종시의 필적임을 알 수 있다. 명월대 바로 북쪽에는 1910년경에 시설한 돌다리가 있으며 「제주의 문화재」 주변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팽나무와 푸조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고대 植物象을 연구하는 자료가 되고, 학술적 가치가 높아서 제주도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다. 키 13cm, 둘레 3m 안팎인 나무가 10여 그루 있으며 산유자나무, 보리밥나무 등이 사이사이에 섞여 있어 웅장한 풍치를 보이고 있다.

홍종시는 추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예가이다. 해서도 썼지만 예서작품도 많이 썼다. 작품이 다양하여 추사와 비교 분석할 때 해서와 예서로 한정하여 다루어보았다. 홍종시가 쓴 명월대의 예서는 굳센 획에서 기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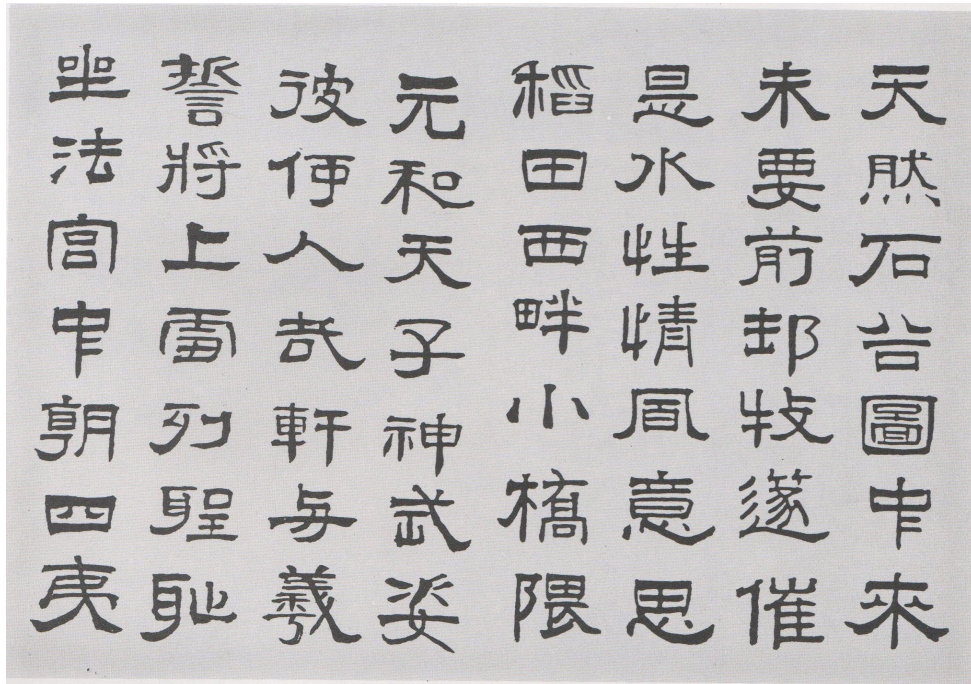


(圖 57) 〈湖西艸堂〉

58) 昭和6년: 1931년에 홍종시가 씀

넘쳐난다. 획과 획 사이의 필세의 연결에도 일관성이 있으며, 정방형으로 균형미가 뛰어나다.

〈호서초당〉(圖 57)은 홍종시가 예서로 쓴 현액이다. 필힘이 넘치고 선에 안정감이 있으며, 균형미, 조화미, 결구미가 뛰어난 작품이다. 선과 선의 조합, 획과 획의 만남이 예술적이어서 추사의 예서를 대하는 듯하다.



(圖 58) 〈天然石谷〉

〈天然石谷〉(圖 58)은 글자와 글자 사이, 행과 행 사이, 세로줄과 가로줄의 짜임의 다채로운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서와 예서가 혼합된 서체로 추사의 기법이 남아있다. 〈臨漢鏡銘〉(圖 60)의 전서체와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篆烟繚青〉(圖 59)은 해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형태의 행서로 추사의 기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하다. 장방형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정형미, 조화미, 균형미가 뛰어나다. 결구미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추사의 해서나 행서의 특징인 한 획이 굵게 나오면 다른 획은 약하게 표현



(圖 59) 〈篆烟繚青〉

되는 예술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지금부터는 추사의 예서와 행서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臨漢鏡銘〉(圖 60)은 漢代의 鏡銘을 임서한 것이다. 글씨의 원본은 예서보다는 전서에 가까운 것이다. 추사는 파임과 빠침이 분명한 東漢의 예서보다는 전서의 형태를 지닌 西漢의 예서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 西漢의 碑碣은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그 원형을 경명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여 경명을 모두 隸法으로 임서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추사의 예서를 형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臨漢鏡銘〉 말미의 跋語에서 추사는 “漢隸로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東漢시대의 것이요, 西漢시대의 것은 하나도 볼 수 없으며 鼎, 鏡 등 器物에 있는 글씨들이 西漢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은 阮堂集 가운데에도 보이는데 이는 秋史의 書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圖 60) 〈臨漢鏡銘〉

〈黃龍嘉禾〉(圖 61)는 보기 드문 大字이다. 서법으로도 추사 예서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龍’과 ‘禾’는 회화적인 상징이 잘 표현되어 있고 예서의



(圖 61) 〈黃龍嘉禾〉

면서 행서 筆意로 운필했기 때문에 行雲流水와 같은 輕快感을 느끼게 한다.

黃龍嘉禾는 경쾌하게 운필한데 비하여 이것은 厚重한 맛을 풍긴다.

〈殘書頑石樓〉(圖 62)는 강상에서 썼는데 이곳은 추사가 제주 유배 이



(圖 62) 〈殘書頑石樓〉

후 머물던 곳으로 노랑진이 보이는 용산의 강마을이다. 이 작품에서는 篆·隸·楷·行의 筆法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글씨 전체의 구도를 보면 상부는 橫畫를 살려 平整을 나타냈고 하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豎畫의 개성을 잘 살려서 參差不齊하면서 전체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런 구도는 일찍 다른 書家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이다.

〈竹爐之室〉(圖 63) 편액을 보면 외형의미를 갖추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기교가 뛰어난 작품이다. 竹과 之, 室 석자는 획이 적고 爐주자는 획이 많은 것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였고 之는 좁게 하고 室은 중앙을 넓게 하여 布白의 구성을 조형미 있게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추사는 經學과 金石學에 조예가 깊고 중국 西漢시대의 예



(圖 63) 〈竹爐之室〉

서에서 筆法을 체득하였다. 그리고 그 예서에 행서를 조화시켜서 독자적으로 이룩한 글씨가 유명한 추사체이다. 따라서 그의 글씨의 本領은 隸書로, 이 작품은 김정희 글씨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예서의 법도에 충실하면서도 字體의 구성이 절묘하고, 자유자재로 한 운필은 雄渾한 기상이 넘친다.

추사는 서법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무한히 확장된 그림의 세계를 성취했고, 또 그의 의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圓嶠 李匡師의 글씨가 서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절에 서법의 통념을 비판하고, 예서와 篆書 등의 고전으로 돌아가 서법의 본질과 근원을 탐구한 끝에 독창적인 서체를 재창조한 과정은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의 軌跡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사의 정신은 홍종시에게도 영향을 미쳐 〈臨漢鏡銘〉의 과책 없이 고졸한 예서를 중시한, 또 다른 홍종시 예서를 보여주고 있다. 추사적 거지의 유희비글씨에서도 추사체의 雄建美가 드러나 있어 研農의 심미적 세계를 볼 수 있다.

VI 濟州 現代의 書藝흐름과 整體性

1. 濟州 現代의 書藝 흐름

추사 이후의 근 현대의 제주 서예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서예가들로서는 洪宗時를 비롯하여 그 외의 安永綏, 金龍徵, 金炳奎, 安秉宅, 李啓徵, 張聖欽, 元容植, 金丙旭, 金錫翼, 金勻培, 康用範 등 많은 서예가들이 當 時代의 서예가로 활동하며 제주의 서예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고, 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수학한 竹巖 高順欽(1893~1977), 清灘 金光秋(1905~1983), 素菴 玄中和(1907~1997), 海丁 朴泰俊(1926~2001) 선생들이 뒤를 이어 활동하였다.

특히 竹巖 高順欽은 정치인이며 언론가, 독립운동가로서 抗日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37년3월 일본에서 ‘朝鮮書道研究會’를 만들어 秋史體와 함께 蒼巖體등 민족서체 보급에 노력하였고, 1963년 영주 귀국하여서는 서예활동에 몰두, 제주 부산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해방 후 제주 서단의 형성과정을 보면 1947년에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가 결성이 되는데 이것은 좌익계의 ‘朝鮮文化團體總聯盟’에 맞서 우익계가 대항할 結集體로 탄생했으며, 제주는 1956년에 13개 분야 중 서예는 미술 분야에 포함되어 서예 분과 위원에 玄中和가 추대되었다.

1955년에는 미국 공보원(관덕정)에서 洪貞杓, 朴泰俊 등 서예가들이 대거 부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濟州美術協會’를 창립하고, 서양화가 金仁志를 회장으로 제1회 창립전과 미술 강습회를 열었다. 1963년도에 ‘淡淡會’를 시작으로 1965년도에 ‘瀛州硯墨會’가 창설이 되어 초대 회장에 洪貞杓가 추대되었고 부회장에 玄中和, 총무에는 文基善을 선임했다.

창립회원은 金光秋, 金奉玉, 金玟奎, 金升協, 金順謙, 金時顯, 金鐸林, 金

泰俊, 李範九, 金性澤, 康昌洙, 梁重海, 金奉洙, 邊榮卓, 姜昌浩, 玄炳璨, 玄玫植, 姜柄瓏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창립 회원전은 중앙의 孫在馨까지 참석한 가운데 濟州市와 西歸浦市에서 창립전을 성대하게 열었다.⁵⁹⁾

60년대의 대표적 서단 활동은 한라문화제(현 탐라문화제)에서의 競書대회, 제주도미술협회전에 이어 玄中和의 국전 입선(1957년)과 추천·초대작가, 심사위원 활동을 비롯해 朴泰俊이 국전 입선(1960년), 특선(1967년) 입상과 추천·초대작가, 중앙무대 국전 운영 활동이 있었고 金順謙이 국전 입선(1967년)과 邊榮卓의 국전 입선(1968, 1969, 1973년)을 하며 제주 서단을 빛내었다.

60년대 이후의 書壇은 많은 發展과 變化를 이룩하여 各種 公募展에서 수상하는 등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國展級의 서예대전에서 作家로 登極한 서예가들도 많이 나타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의 韓國書壇의 代表格인 東江 趙守鎬 선생님이 한경면 저지리 예술인 촌에 입촌하여 작품 활동과 함께 濟州書藝文人畫總聯合會의 원로로 제주서단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門下生도 두고 있다.

2. 濟州 書藝의 整體性

삼국시대 이후 고려 시대까지 한국의 한자문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금석문들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초인 <粘蟬縣神祠碑>와 고구려 시대의 가장 오랜 금석문인 <好太王碑>를 제외하고 金生의 <太子師郎空大師白月瑞雲塔碑>와 최치원의 <雙谿寺眞鑑禪師碑> 등은 모두가 사찰문화에서 비

59) 康榮浩, 『濟州文化白書』, 日新畝셋印刷社, 1988.2. p.131.

릇되었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왕성했던 사찰의 문화는 제주도에도 민간 신앙과 함께 난립하였으나 조선시대의 유교화 정책으로 깨끗이 사라졌다. 한국의 서예사에서 첫머리에 등장하는 서예가는 釋良志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의 서예사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서예가는 高適을 들 수 있다.

高適은 고려시대 三別抄를 진압하고 耽羅星主가 된다. 고적은 고려시대 지방 土豪 세력들의 불만 해소 차원에서 시행된 과거에 급제 하여 중앙에서 근무하다 제주로 들어 왔다.

조선시대가 되어 高得宗이 유학하여 관직이 漢城府判尹(서울시장급) 까지 오르는데 고려시대에 도입된 송설체의 명필이 되었다. 송설체는 고려시대 학자 李齊賢에 의해 들어와 안평대군에 의해 크게 유행하였지만 고득종의 글씨체도 안평대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글씨이다. 안평대군이 명성을 떨친 것은 왕자라는 지위의 배경과 정치적 역량에 기인한 것이 더 클 수도 있다.

고득종은 효행으로 旌閭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직에 등용된 후는 항상 고향의 발전과 도민들의 학문을 위한 일념으로 봉직하여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고 제주의 유생들은 그의 사상과 학문을 높이 사 향현사에 배향하였다. 특히 그의 홍화각기의 서체는 제주서예의 표본이고 법첩으로 서예 공부를 하는 선비이면 누구나 모두 홍화각기를 모사하고 임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 유교문화가 들어오고 향교가 설립되면서 官體로 쓰인 송설체는 조선 후기까지 오점에 의하여 전수 되면서 내려온다. 제주는 한때 탐관오리들의 악질적인 횡포와 심한 부역, 그리고 과다한 稅制로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육지로 도망가는 자가 많아 仁祖 7년(1629년)부터 약 200년간 국법으로 出陸을 금지 시킨 적이 있다. 이러한 영향은 육지의 문화가 들어올 기회가 적었고 마땅한 법첩이 없었으며 향교의 教育體도

송설체였으므로 제주에서 유행한 서체는 거의 송설체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들어 여러 士禍에 얽혀 많은 유배인이 들어오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능을 糊口之策으로 삼으면서 유생들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되었다. 그 대표적 유배인이 제주의 書藝文化를 부흥시킨 秋史 김정희이다

이와 더불어 朝鮮 五百年간의 수많은 목민관이 제주를 거쳐 가면서 남긴 磨崖銘이나 비문도 제주 서예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유배인들에 의하여 동국진체도 나타나지만 향교의 교육 영향은 서원과 학당, 서당으로 이어지면서 송설체는 추사체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이어진다. 추사체의 영향은 제주의 유생과 서예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고 기회로 받아 들여졌다.

추사 이후의 추사체는 그 제자들에 의하여 전수 되지만, 경북 선산의 대학자인 許薰에게서 수학한 張聖欽이 추사체를 잘 써서 도내에 수많은 비문을 남겼는데 남읍리 〈耽羅王子后文公之墓〉의 비문은 유명하다.

이러한 제주서체의 변화는 대부분 유배인과 목민관들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 추사체 탄생 이전의 제주서예의 源流는 고득중이고 제주서예의 整體性도 홍화각기의 靈谷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사체 이후 100여 년간은 추사체가 제주서예의 整體性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素菴과 海丁의 서풍에 영향을 입은 제자들과 그 외의 유학을 하거나 자학으로 일가를 이룬 서예가들에 의해 다양한 서풍으로 제주서예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VII. 結 論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감정과 정서 속에 문자예술로 자리매김해 온 서예는 絶海孤島의 제주에서도 학문을 즐겨했던 훌륭한 선비들의 글에서 微弱하나마 書藝術의 창작에 열중했던 흔적들이 보였다.

제주에서의 학문의 발달과 서예의 시작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부터였고, 당 오백, 절 오백이라는 독특한 巫佛合一의 신앙체계를 갖추게 된 것도 고려 시대 불교장려 정책 때문이었다. 고려는 불교를 중요한 사회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八關會에 참석한 高維를 과거에 及第시켜준다. 불교문화의 발전은 학문과 서예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高維의 曾孫인 高適이 명필의 대열에 오르면서 제주서예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들어 정치이념은 崇儒抑佛과 崇文賤武의 유교정책으로 바뀌고 유학교육은 인재양성과 함께 과거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되어 정치적 발전에 致命傷을 가져오지만 고득종의 興學에 대한 遺稿는 本島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條例十箇條”는 그의 교육사상과 함께 조선조 교육의 본질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1460년(세조6년)에 原從功臣으로 追贈되고 1843(헌종9년)년 제주목사 李源祚에 의해 鄉賢祠에 배향 되었다.

1519년 기묘사화로 유배 온 金淨의 학문은 金良弼을 통하여 계승되었고 제주향교의 유생들은 각각이 지역의 학당과 서당에서 다시 많은 학자와 서예가를 배출하였다.

1840년 추사선생의 유배입도는 제주 서예문화의 예술사적인 위치에서 대단한 변혁을 일으킨다. 추사의 道學을 공부한 梅溪 李漢震은 安達三系의 큰 석학 金錫翼을 탄생시키게 되고 서예를 공부한 金九五는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며 研農體를 탄생시킨 洪鍾時로 이어진다.

해방 이후 제주의 서단은 일본 유학과 서예가들과 향토 서예가들이 중

심이 되어 書藝同好人 단체를 구성하는 등 폭 넓은 활동을 전개 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드높은 학문과 예술적 기량은 제주서예 발전의 母胎가 되었다. 현재의 제주의 서단은 그 후학들에 의하여 독특하고 개성적인 예술을 창조해 나감으로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본 논고의 연구 중 가장 큰 성과로는 제주서예의 源泉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과 그 작품으로는 〈弘化閣〉과 〈弘化閣記〉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홍화각기의 서체를 보면 570년 前의 글씨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깨끗하여 法帖으로 삼고 싶을 정도이고 보면 과거에 홍화각기는 분명 좋은 법첩 자료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료 조사를 위하여 산으로 들로, 전해들은 이야기의 현장을 찾아 헤매고 다니면서 많은 마애명과 비석을 보았으나 비석문화는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주에서 출토되는 비석의 석질이 오랜 세월 제주의 환경에는 견디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수백 년 전의 금석문도 흔적 없이 지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주서예 형성과정의 광범위한 부분을 짧은 시간에 감당하여 밝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서예사의 자료가 빈약한 것은 연구에 많은 애로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磨崖銘과 碑石, 그리고 현판이나 판각문에서 서예 형성과정과 학문의 발전과정을 유추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의 큰 결실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록이 모아지고 다듬어지다 보면 올바른 제주 서예사도 정립되어 질 것이며 서예문화의 발전도 향상되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서예현실에 대해 한마디 贅言한다면 그동안 서예는 인성을 바르게 하고 고매한 품위를 유지시켜 주는 선비의 학문으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餘暇를 이용하여 공부하여 왔으나 국가차원의 漢字教育不在로 서예는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자교육의 부재는 한마

디로 서예문화의 抹殺政策이고 역사에 대한 國民文盲政策이라 할 수 있다.

문화란 그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民族精神이 살아 숨 쉬는 조그만 삶의 현장이다. 수백 년의 역사문화에 대한 文盲이 될지도 모르는 漢字教育의 부재는 분명 잘못된 國民教育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서예문화의 발전도 한자교육의 復活에서 그 원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몇 안 되는 서예인들이 서예인만을 위한 행사로 치러지는 전시행사도 작품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일반 대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 書壇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公募展에서도 배경 좋고 모방 잘한 글씨만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學問的 實力과 기능이 두루 갖추어진 ‘文字香 書卷氣’가 배어있는 참된 예술가를 選出하는 방법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E.H.Carr은 “歷史란 歷史家와 事實間의 繼續的인 相互作用의 過程이며, 現在와 過去 사이의 끊임없는 對話” 라고 하였다.

지금도 이러한 대화 속에서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 중 조정 철목사가 洪義女에게 바치는 詩 중에 烈女門을 못 세우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목사의 한을 풀어 주는 것도 이시대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전부 실을 수 없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며 이것이 서예역사를 기록하는 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본 논고가 미력하나마 제주 서예문화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參 考 文 獻

1. 原典類

『동국문헌필원』, 『破閑集』, 『慵齋叢話』, 『眉叟記言』, 『果齊集』, 『東國輿地勝覽』, 『三韓金石錄』, 『退溪集』, 『東國李相國集』, 『諛聞瑣錄』, 『青城集』, 『東國金石評』, 『筆苑雜記』, 『耳溪集』, 『憲宗實錄』, 『哲宗實錄』

2. 國內文獻

趙守鎬, 『書藝術逍遙』, 圖書出版 書藝文人畫, 2005.
강익중, 『濟州 流水岩里誌』, 태화인쇄사, 2010.
郭魯鳳, 『書藝家 列傳』, 다운샘, 2005.
高在珽, 『濟州고氏 大同譜上世編』, 랑주인쇄사, 1983.
高平奎, 『高梁夫三姓祠考』, 朗州인쇄사, 1983.
권상열, 『國立濟州博物館』, 주)우진비엔피, 2011.
國立文化財研究所, 『韓國歷代書畫家事典』, 예맥, 2011.
國史編纂委員會, 『高麗史』 <http://db.history.go.kr>.
金基昇, 『韓國書藝史』, 正音社, 1975.
金基昇, 『新稿 韓國書藝史』, 삼화인쇄, 2006.
金南馨 譯, 『書藝批評』, 書藝文人畫, 2002.
金富軾, 이병도 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96.
金奉玉, 『濟州通史』, 세림, 2000.

金奉鉉, 『濟州島 流人傳』, 耕信印刷社, 2005.
 金錫翼, 『耽羅紀年』, 信一印刷社, 1976.
 김병수, 『우리 고장의 비석들』, 오디콤, 2008.
 金榮墩, 『濟州文化研究』, 耕信印刷社, 1993.
 金應顯, 『書與其人』,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金益洙 譯, 『知瀛錄』, 耕信印刷社, 2010.
 金益洙 譯, 『續陰晴史』, 耕信印刷社, 2010.
 김순관, 『濟州美協』, 不記, 2005.
 金正喜, 『阮堂全集』, 민족문화추진회편, 1996.
 金榮洽, 『20世紀 濟州人名事典』, 도서출판 조원사, 2000.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金黃洙, 『濟州文獻集』, 信一印刷社, 1976.
 東洋古典學會 譯, 吳世昌 著, 『國譯槿域書畫徵』, 시공사, 1998.
 박병천, 『中國歷代名碑帖 書藝美 研究』, 美術文化院, 1990.
 박종국, 『E.H.Carr, 歷史란 무엇인가』, 육문사, 1993.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裴奎河, 『中國書法藝術史』, 李花文化出版社, 1999.
 北齊州郡, 『北齊州郡 碑石總攬』, 세림원색인쇄사, 2001.
 宣柱善, 『書藝概論』, 美術文化院, 1986.
 宣柱善, 『書藝通論』, 圓光大學校出版局, 1998.
 손명조, 『素菴 玄中和 선생의 삶과 藝術』, 비엠비, 2007.
 神田喜一郎, 『中國 書道史』, 雲林筆房, 1985.
 沈尹默 著, 郭魯鳳 譯, 『書法論叢』, 東文選, 2004.
 梁相哲, 『北齊州郡誌』, 濟州印刷情報産業協同組合, 2006.
 梁鎮健, 『濟州 流配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吳文福 譯 『金勾培-謹齋 北學日記』, 耕信印刷社, 2005.

- 吳文福, 『瀛州風雅』, 濟州文化社, 2004.
- 禹瑾敏, 『濟州道 磨崖銘』, 耕信印刷社, 2000.
- 유건화 著, 郭魯鳳 譯, 『安眞卿 書藝와 造形分析』, 東洋書學叢書, 다운샘, 2004.
- 劉正成 主編, 『中國 書藝 理論體系』, 東文選. 2002.
- 俞弘濬, 『나의 文化遺産 踏查記』, 창비, 2012.
- 윤세민, 『濟州의 書堂教育』, 市民堂 印刷社, 1994.
- 李貴永, 김오순, 『海國에 먹물은 깊고(추사)』, 海東印刷社, 2010
- 李貴永, 張齊根, 『산은높고 바다는깊네(추사)』, K·TWOstudio, 2006
- 李圭馥, 『概說 韓國書藝史I』, 李花文化出版社, 2004.
-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2001.
- 이동민, 『韓國· 近· 現代書藝史』, 수필과비평사, 2011
- 李奉昊, 『金生書 白月碑』, 正東出版社, 1985.
- 이완우, 『書藝 鑑賞法』, 대원사, 2003.
- 李鍾燦 編譯, 『서예란 무엇인가』, 李花文化出版社, 1998.
- 李清圭,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1995.
- 李弼坤, 『韓國의 美』, 청계, 1985.
- 張齊根,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 中央文化印刷, 2004.
- 全圭鎬, 『書藝의 創作과 章法』, 明文堂, 2009.
- 全相模, 『文化權力과 書藝公募展』, 다운샘, 2008.
- 鄭以五, 『東文選. 星主고씨家傳』, 韓國古典翻譯院, 1998.
- 鄭充洛, 『書形態美比較 研究』, 美術文化院, 1987.
- 濟州道, 『濟州道誌 1 권』, 耕信印刷社, 1993.
- _____, 『濟州道誌 3 권』, 耕信印刷社, 1993
- _____, 『조선총독부관보중-제주록-』, 耕信印刷社, 1995
- _____, 『濟州文化藝術60年史』, 대영인쇄사, 2008.

- _____,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濟州印刷情報産業協同組合, 1973.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誌』,耕信印刷社, 1991
- 濟州道教育廳, 『濟州教育行政發展史』, 耕信印刷社. 1991.
- 濟州道教育委員會, 『濟州教育史』, 인쇄사 不記, 1979.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濟州道一般動産文化財』,泰和印刷社, 1991.
- 濟州儒脈六百年史編纂委員會, 『濟州儒脈六百年史』, 學文社, 1997.
- 濟州市, 『濟州市 碑石一覽』, 世林原色印刷社, 2002.
- _____, 『濟州市의 文化遺蹟』, (주) 나라출판, 1992.
- 濟州鄉校, 『濟州鄉校誌』, 耕信印刷社, 2000.
- 조경철, 『中國과 韓國의 書藝史』, 李花文化社, 19
- 趙東元, 『韓國金石大系-제주도편』, 圓光大學校出版社, 1985.
- 趙東碩, 『近·現代 濟州教育100年史』, 耕信印刷社, 2011.
- 趙現鐘, 『濟州의 歷史와 文化』, 대광문화사, 2001.
- 周來祥, 남석헌, 노장시, 『中國古代美學』, 미진사, 2003.
- 韓國美術史會,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 洪性欽, 『研農先生遺墨』, 耕信印刷社, 1989.
- 洪淳萬, 『濟州의 女人象』, 濟州文化院, 1998.
- _____, 『濟州文化藝術白書』, 日新옵셋印刷, 1988.
- _____, 『增補耽羅誌』, 耕信印刷社, 2004.
- _____, 『濟州文化10월, 11월호』, 아이필, 2004.
- 韓致文, 『耽羅實錄』, 韓進文化社, 1973.

3. 論文類

- 강재병, 「弘化閣懸板炭素年代測定」, 濟州日報, 2011.
-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 『耽羅文化 6권』, 1987.
- 高永伊, 「唐太宗의 書藝美學과 實踐에 관한 考察」,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高榮辰, 「米芾의 書藝觀과 서풍에 관한 연구」, 세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權赫龍, 「彝齋權敦仁의 作品研究」,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金奉玉, 「秋史 金正喜의 流配書簡 研究」, 濟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 김서형, 「백하운순서예미학의 비평적고찰」,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선원, 「田遊巖山家序」, 『書聖 김생』, 1997.
- 金世豪, 「金生」, 『韓國美術史展』, 大韓民國藝術院, 1985.
- 김성진, 「孤雲 崔致遠의 書藝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2.
- 金順謙, 「濟州書藝 發達의 史的考察」, 東洋産業社, 1994.
- 김영소, 「서예사적 견지에서 본 흥덕사본 직지서체」,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정렬, 「圃隱 鄭夢周의 書藝觀 연구」,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현길, 「金生과 그의 遺墨跡에 關하여」, 『書聖 金生學術發表會』, 1997.
- 김홍길, 「秋史 金正喜의 隸書 研究」, 圓光大學校 碩士學位논문, 2002.
- 藤塚隣, 「金秋史의 入京과 翁·阮 二經師」, 『東方文化史叢考』, 京城帝大文學會編, 1935.
- 朴民子, 「秋史 金正喜의 書藝世界 研究」,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朴順伊, 「朝鮮時代 民體의 書藝美 研究」, 수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성일, 「秋史金正喜」, 『한국의 實學思想』, blog.naver.com, 2006.
- 裴吉基, 「統一新羅의 書藝」, 『韓國美術史』, 大韓民國藝術院, 1984.
- 徐東亨, 「金生의 筆法論」, 『金生書法字典』, 石器時代, 2005.
- 손환일, 「新羅時代의 書體에 關한 研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 논문, 2002.
- 오명남, 「圓嶠와 秋史의 서예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 논문, 2004.
- 윤의원, 「書窓逸話金生傳」, 『月刊書藝』, 미술문화원, 2000.
- 이미경, 「金生 書藝研究」,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6.
- 李成鎬, 「韓國現代書藝의 考察」, 漢陽美術作家協會, 2002.
- 이성배, 「統一新羅와 高麗의 書藝와 名筆」, 大田大學, 2006.
- 李完雨, 「統一新羅 金生의 筆跡」 『韓國史韓國文化先史와 古代』, 11.韓國古代學會, 2004.
- 정후주, 「秋史 金正喜의 濟州道 流配生活」, 『漢城語文學』, 漢城語文學會, 2003.
- 조수현, 「孤雲 崔致遠의 書體特徵과 동인의식」, 『書藝研究』, 圓光書藝學會, 2005.
- 최순택, 「秋史의 書畫世界」, 學文社, 1996.
- _____, 「綠色紀行-濟州 流配地 紀行 資料集」, 綠色濟州研究所, 2003.
- 한창훈, 「秋史 金正喜의 제주 流配기 諺簡과 그 文學的 性格」, 『濟州道연구』 18, 濟州學會, 2000.

4. 圖錄 및 書帖類

- 『고승유묵』, 우일출판사, 2004.
- 『金生書法字典』, 圖書出版 石器時代, 2005.
- 손환일, 『金生書集成1』, 聽流軒, 2000.
- 李奉昊, 『金生書 白月碑』, 正東出版社, 1985.
- 이동국, 「海東書聖金生」, 『월간書藝文人畫』, 李花文化出版社, 2006.
- 劉正成, 『中國書法全集·王羲之』, 榮寶齋, 1991.
- 조수현, 『한국금석문법서전』 1, 李花文化出版社, 2003.
- 『中國書藝全集』 4, 美術文化원, 1994.
- 『韓國石文大系』, 권 2, 3, 5, 圓光大學校出版局, 1988.

5. 辭典類

- 『韓國藝術事典Ⅱ』, 大韓民國藝術院, 1985.
- 『韓國民族文化 大 百科事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韓國佛教 人物思想史』, 佛教新聞社編, 1990.
- 『金生書法字典』, 石器時代, 2005.
- 『古典文學字典』, 師村妙石編, 1990.
- 『書道大字典』, 美術文化院, 1983.
- 『行草大字典』, 東京堂出版, 昭和57.
- 『故事成語辭典』, 學園社, 1977.
- 『標準國語大事典』, 躍進文化社, 1987.
- 『最新 大 玉篇』, 教育出版公社, 1996.

6. 叢書類

龍紅,『中國書法藝術』,重慶大學出版社. 2006.

何學森,『書法五千年』,時代文藝出版社, 2006.

邱振中,『書法』,北京師範大學 出版集團, 2008.

ABSTRACT

The Study of Calligraphic Structure in History of Jeju

by Lee, Yonghoon

Majored in Calligraphy

Department of Formative Art

Graduate School of Art

The University of Suwon

Jeju is an isolated island thousands of miles away in the southern sea of the 'Han' peninsula. The climate of the island has ever been always windy and harsh. Productivity of the rocky volcanic soil was also an another something poor one. For the folks, their living was much harder than any other region of the main land. They had to experience numerous invasions and exploitations from neighbouring tribes or other entities.

It had produced some kind of unique tradition in Jeju society. People have been more accustomed with verbal expression than to write down and put some ideas in letters. So the history of Jeju, it starts with the myth of 'Samseongshinwha'. And also it's not always easy to find any of written statements in regard to a certain historic events. Consequently the most useful way of the study was to visit the site and talk a lot with folks nearby.

It is normal to date back to the era of 'Hansagun' that the culture of Chinese letter emerged in our country. The established four 'Gun'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country in the name of each, 'Imdun', 'Jinbeon' and 'Hyunto'. All the three 'Gun's ruined thirty years after, but the 'Rakrang' was long time since the Chinese cultural center.

'Koguryeo' had emerged in the year of B.C.37 and it was 14th year of king 'Micheon' that the 'Hansagun' had been expelled from the territory of the 'Rakrang' remaining its culture there. We can say that this was an important era of the influence to our country in terms of the Chinese letter and culture.

Calligraphy that has ever been progre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Chinese letters created many of written statements so called 'Geumseokmun' and left histories of the legendary artists. We can find some of prominent history books of calligraphic society in our country such as 'Geunyeokseohwajing' written by 'Osechang' in 1917, a dictionary of calligraphic artists in Korea with the title of 'Hangukseohwainmyeongsaseo' by 'Kimyeongyun' in 1954 and 'Singohangukseoyesa' by 'Kimgiseung' in 1975. One of the remarkable book is 'Hangukyeokdai seohwaga sajeon' published in 2011 by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f Culture'.

But in Jeju, there are no such a book about any artist or about any history except for the 'Jejudoinmyeongsajeon' by 'Kimchanheup' and 'Sononmun' by 'Kimsunkyeom'. Some of useful data for the study can be found in the book 'Jeungbotamraji' and 'Tamraginyeon'. These books state the history of Jeju from 'Koryeo' to 'Chosun' era and the aspect of the political and social life.

It was not until the Buddhism came into Koryeo that Jeju began to experience a certain degree of development in science and calligraphy. Through the fact that 'Koyu' was accepted as an official in praise of successfully participated in 'Palkwanhoe', we can see the Buddhism was an important social function for education at that time. If we are to look into the history of calligraphy in Jeju as a whole, we can see that this kind of development ranges from a competent calligrapher 'Gogeok', a grandson of 'Koyu' in 'Koryeo' dynasty to 'Kodeukjong' of early era of 'Chosun' dynasty.

Political idea of the 'Chosun' dynasty was different from that of 'Koryeo'. The former encouraged more 'Yugyo' than any other religious idea such as the 'Buddhism'. 'Chosun' dynasty also showed a severe inclination to the scholaric personnels rather than the martial ones. 'Yuhak (Confucianist school)' itself became one of the important educational facility through out the country. But this kind of social aspect was not so favorable to the development of politics.

'Kodeukjong' wrote down his educational thoughts in 'Joryesibgejo' and it became a prototype In Jeju 'Yuhak' society. He was officially awarded a vassal of merit in 1460, 6th year of 'Sejo' and In 1843, 9th year of 'Hyeonjong' the governor of Jeju 'Leewonjo' set a shrine for the memories of 'Kodeukjong'.

'Kimyangpil' inherited the philosophy of 'Kimjeong' who had been exiled to Jeju in 1519 for the alleged connection of 'Kimyosahwa'. The idea of 'Kimjeong' made a principal protocol in Jeju 'Yuhak' school and disciplined numerous 'Yuseng (confucianist pupils)' and calligraphers there. 'Chusa's coming in as an exiled was one of the

remarkable event for the calligraphic society of Jeju in 1840. 'Megye Leehanjin' who had studied under 'Chusa' taught a great scholar 'Kimseokik' and after 'Hongjongsi' invented a unique calligraphic style of 'Yeonngongche'.

After the end of a long Japanese seizure, the calligraphic scene in Jeju had been led by the artists who had studied abroad. They formed some kind of artist group and this was the beginning of an outstanding development in calligraphy in Jeju. Nowadays there are many of artists who have unique and creative style. It means that the future of the calligraphic society of Jeju island is very prosperous.

One of the prominent result of this report was to have found the calligraphic originality such as 'Honghwagak' and 'Honghwagakgi'. Even though it has been written 570 years ago, the style of the 'Honghwagakgi' is so clear that there is no doubt for anyone to take it as a tutorial model.

There is no denying that it never is an easy job to study the procedure and the history of formative calligraphy. But I dared to start the job hoping to be able to create a simple milestone in calligraphic society of Jeju.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 found is that the remaining rocks with letters on it and the epitaphs, or some of calligraphic plates are always ready to say the various kind of things such as procedure of formation in style. I would like to have another opportunity to go further in this regard.

저작물 이용 허락서

소 속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서예전공) 2013년 2월 졸업	
성 명	국문: 이용훈 (한문: 李瑑薰)	학 번: 10570201
	영문: Lee Yong-hoon	생년월일: 1950 년 01월 14일
논 문 제 목	국문: 제주서예 형성의 사적 연구 영문: The Study of Calligraphic Structure in History of jeju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수원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수원대학교에 이를 통보함.
6. 수원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수원대학교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2년 12 월 일

저작자 : 이 용 훈



수 원 대 학 교 총 장 귀 하